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 발표자료집



Sesson 1 : 박 세 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와 대응

Sesson 2 : 나 수 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Sesson 3 : 강 성 부 KCGI 대표  
ESG 투자의 현실적 접근

Sesson 4 : 윤 동 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대전환의 시대, ESG 전문 인력 지원체계 구축

Sesson 5 : 도 현 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Session 1

#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와 대응

박세환 상임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이투데이 ESG 포럼 2023

#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와 대응

We bring the finest expertise and insight to our work.

We maintain our independence and fairness.

We are transparent in our decision-making process.

We pursue honesty and integrity.

We trust, communicate open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상임위원



# Contents

<b>01</b>	<b>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b>	<b>03</b>
<b>02</b>	<b>ISSB 기준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b>	<b>09</b>
<b>03</b>	<b>회계기준원 대응 및 주요 업무</b>	<b>23</b>

#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변화

ISSB 설립 및 방향성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 2021  
IN PARTNERSHIP WITH ITALY

01

# 지속가능발전

전 세계적 공감대 형성

1987

UNEP(환경계획)



1992

UNCED(리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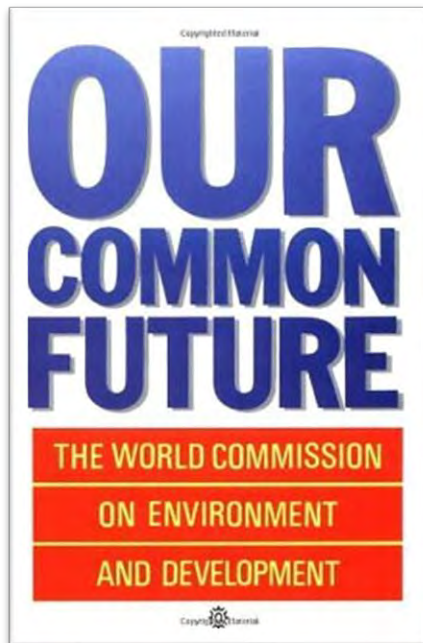
1995~

UNFCCC(기후변화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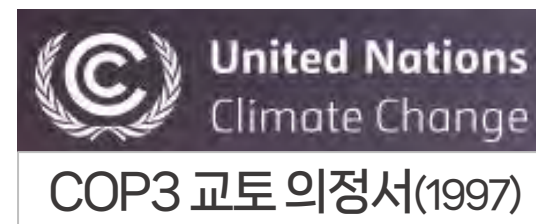
2001~

UNEP FI(금융이니셔티브)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27개 원칙 [리우선언]
-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위한 [Agenda 21]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 UNFCCC]
- 종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조약] 등



선진국의 GHG 감축  
목표치 규정



COP21 파리협약(2015)

COP26 ISSB 설립(2021)

UNPRI(책임투자원칙)



UNEP x UNGC  
6대 책임투자원칙 제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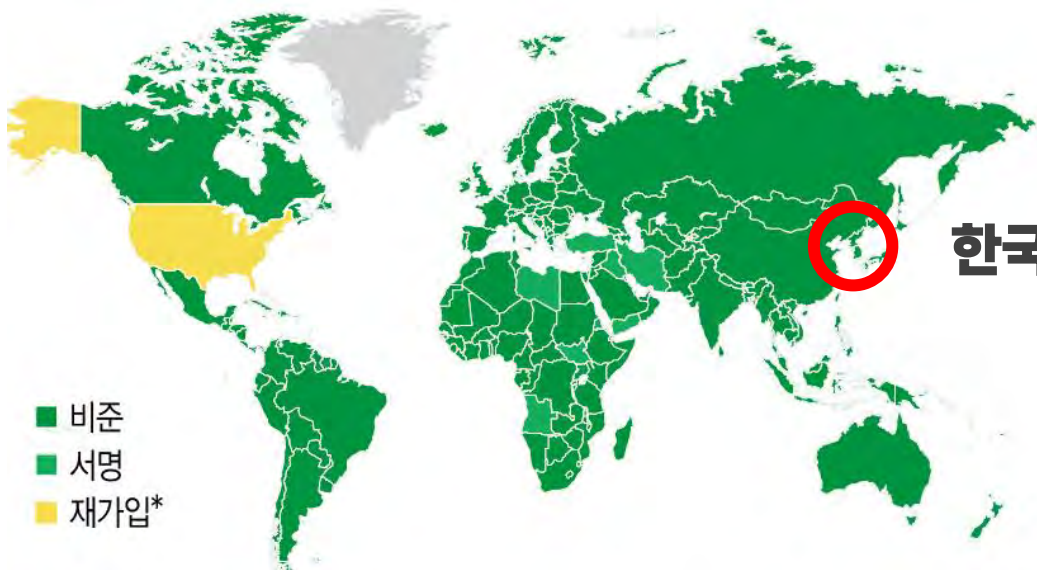


# 파리기후변화협약 COP21

구체화된 2050 Net Zero

2015

파리협약



**한국**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 중간 목표 제시  
| 2050년까지 **탄소중립 Vision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월)

**2050 Net Zero** (IPCC 권고,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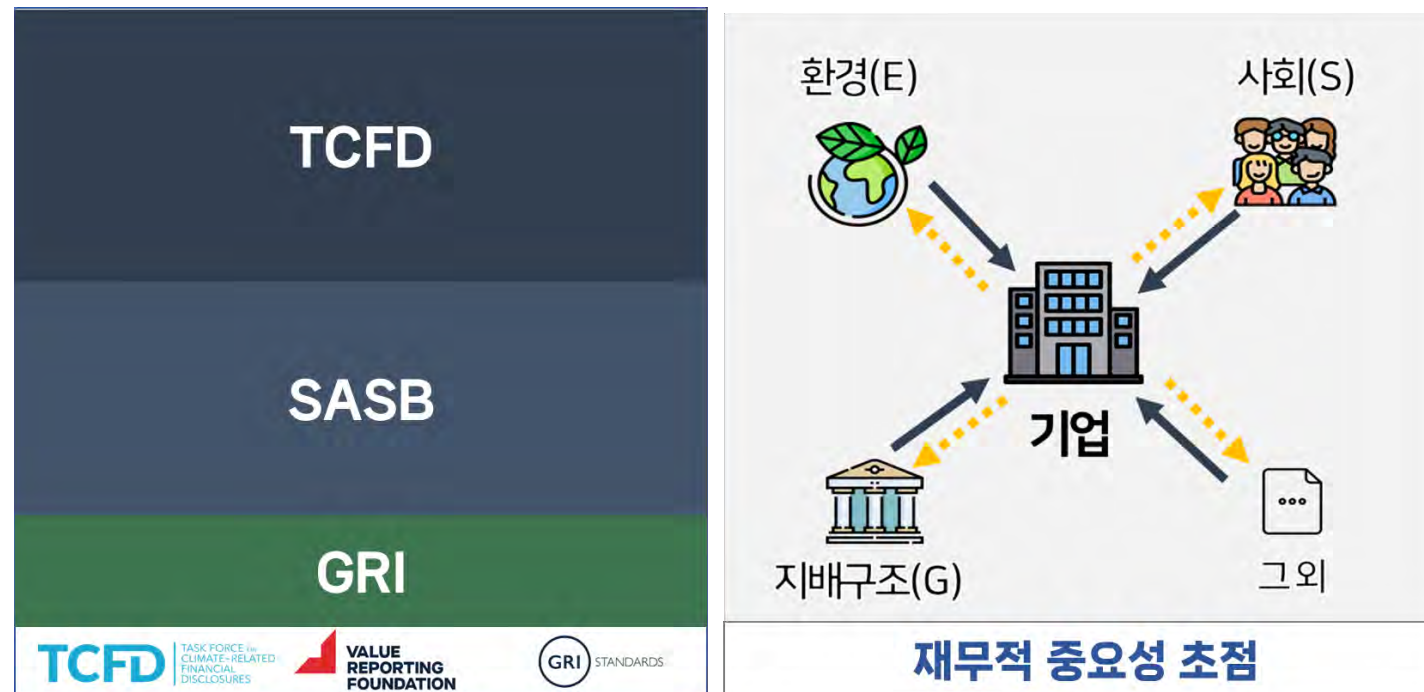
2015. 12.12일 195개국 채택

# 재무적 중요성

재무적 영향의 중요성 증대

2015~2020

TCFD / SASB / GRI



# 글로벌 자본시장의 정보 요구 증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원칙 변화

2020~2021

글로벌 정보 요구 증대



## 블랙록의 새로운 투자 기준, 지속가능성

고객의 자산관리자로서 블랙록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가고 더욱 탄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더욱 안정적이며 높은 장기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투자 옵션들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으므로, 블랙록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상품을 설계하고, 기업에 관여하는 방식에, 지속가능성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투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데이터와 공시가 중요한 이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투자자가 일관성 있는 양질의 주요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모든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및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권장사항에 따른 보고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실질 지속가능성 요인들을 반영합니다. 지난 한 해의 진전은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SASB 공시는 363% 증가했으며 1,700곳 이상에서 TCFD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블랙록에서도 자체적인 TCFD 및 SASB 보고서를 작년에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 국민연금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 개정... '지속가능성' 추가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운용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ISSB 설립 발표 COP26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고품질 글로벌 기준에 대한 요구에 대응

2021

ISSB 설립



6대륙 40개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ISSB 설립과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성-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일련의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를 공개적으로 환영



# ISSB 기준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IFRS S1 및 S2 공개초안 주요 내용  
ISSB 회의결과

# 02

#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기준체계

IFRS기준





# ISSB 공개초안 발표

일반 요구사항 및 기후 관련 공시

**'22.3.31일**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이며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가능한 기준제정을 위해 **두 가지 공개초안** 발표

**ISSB 기준**  
TCFD, SASB, IIRC, CDSB, WEF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  
미 SEC 기후 공시 규정, EU ESRS

IFRS Sustainability  
March 2022  
**Exposure Draft**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Draft]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Comments to be received by 29 July 2022

IFRS Sustainability  
March 2022  
**Exposure Draft**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Draft]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Comments to be received by 29 July 2022

**투자자 중심**  
**기존 전문기구 개념체계 활용**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 가능**

# ISSB 공개초안 발표

일반 요구사항 및 기후 관련 공시

**'22.3.31일**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이며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가능한 기준제정을 위해 **두 가지 공개초안** 발표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ED

핵심요소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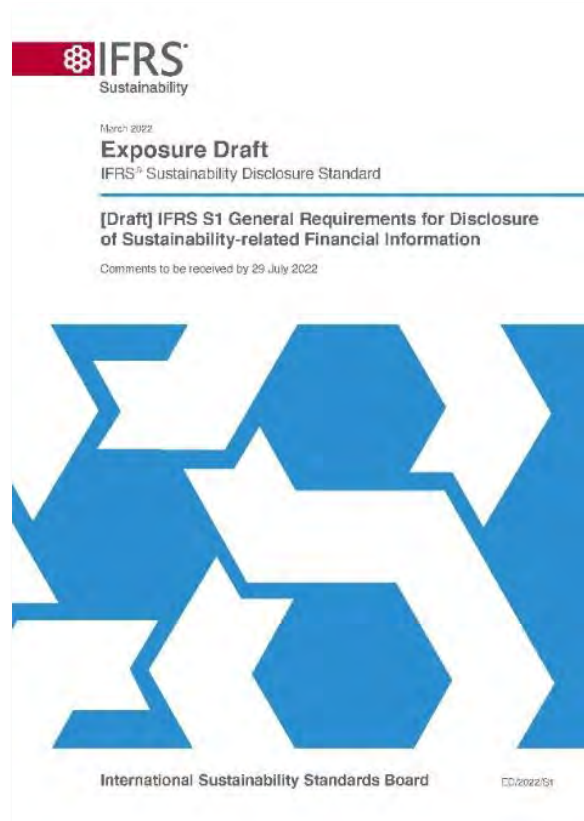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ED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것을 요구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01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이용자에게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02 — 적용범위

IFRS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적용

### 03 — 핵심요소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 04 — 일반사항

보고기업 • 연계된 정보 • 공정한 표시 • 지속가능성관련위험및기회의식별과공시  
중요성 • 비교정보 • 보고빈도 • 정보의위치 • 추정및결과불확실성의원천 • 오류 • 준수문구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04 — 일반사항

#### 보고기업

##### 연결기준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연계된 정보

##### 재무제표와 연계

재무제표와 연계되는 방식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 연계성 평가

#### 공정한 표시

##### 충실한 표현

SASB, CDSB, 다른 이니  
셔티브, 동료기업의 공시  
주제 고려하여 충실한 표현

#### 중요성

##### 중요성 판단

누락, 잘못기재, 불분명할  
시 투자 의사결정의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 보고빈도

##### 동시보고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보고기간도 동일

#### 정보의 위치

##### 재무보고의 일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  
상호참조도 허용

#### 비교정보

##### 서술형도 비교

모든 지표의 비교정보 공시  
서술형도 비교정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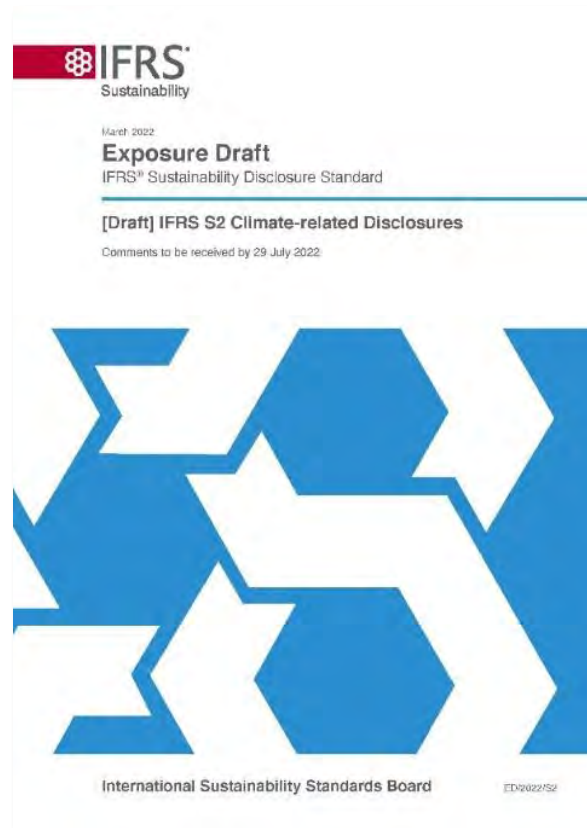
#### 준수 문구

##### 모든 요구사항

모든 요구사항 준수 요구  
현지 법·규정이 금지 시,  
미공시해도 준수 문구 허용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기후 관련 공시



### 01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 02 — 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 03 — 핵심요소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 04 — 부록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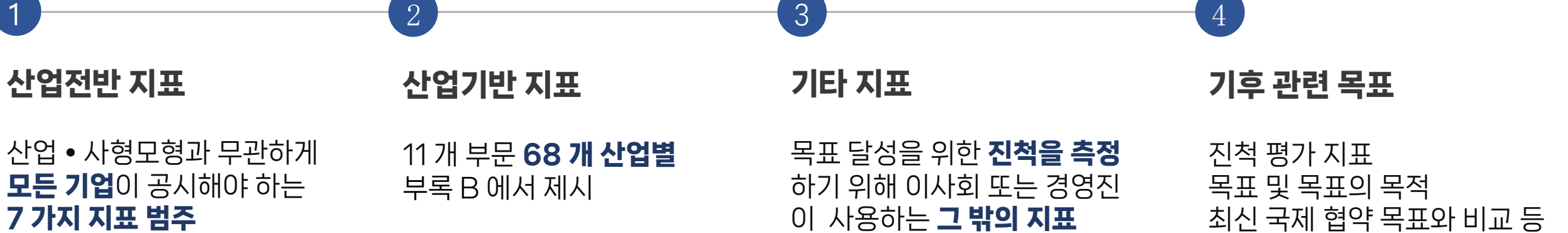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BC49 기후변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여  
**기후 관련의 전체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음**

# 핵심요소

## 지표 및 목표



### 산업 전반 공시 요구사항

- ① 온실가스 배출량
- ② 전환 위험
- ③ 물리적 위험
- ④ 기후 관련 기회
- ⑤ 자본배치
- ⑥ 내부 탄소 가격
- ⑦ 보상

**Scope 1- 3** 절대 총 배출량 / 집약도 / **Scope 3 업 • 다운스트림** 포함 외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활동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활동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업활동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금액  
배출원가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1 톤당 가격** / 탄소가격 의사결정 반영 방법  
기후 관련 사항 연계된 **경영진 보상 비율** / 보상 연계 방식

### 산업 기반 공시 요구사항

- 산업 설명
- 공시 주제
- 지표
- 세부 프로토콜
- 활동 지표

# ISSB 회의 진행상황

ISSB PM

2022

7

>

9

>

10

>

11

>

12

>

안전 우선순위 협의  
의견조회 중간결과

의견조회 최종결과

재심의 방안  
확장성 사안

프로젝트 접근법 갱신

재심의 안전 추가  
근본 개념  
상호운용 가능성

**Scope 1,2,3 배출량**  
GHG 배출량 산출법  
**부록B 산업기반 공시**

**금융 및 촉진 배출량**

IASB와의 협업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비교 정보 • 갱신된 추정치  
**보고 시점**

당기, 예상 재무적 영향 • 연계된 정보  
전략 및 의사결정 • 기후 관련 목표  
기후 회복력

스태프 초안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택사노미

안전 우선순위 협의

근본 개념

**Scope 1,2,3 배출량**  
**금융 및 촉진 배출량**  
**부록B 산업기반 공시**



# ISSB 회의 진행상황

ISSB PM



2023  
1



2



현재  
3-6



2023  
Q2

IFRSS1및 S2  
최종기준발표

지표 및 목표의 목적

판단, 가정 및 추정치

과도한 원가, 노력없이 이용가능한 정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당기, 예상재무적 영향•연계된 정보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GHG배출량- 보고기간완화규정**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공시하기 위한 지침의 출처

**시행일**

**정규절차와 투표절차 진행 허가**

비례성 해소 및 기업의 기준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잠정 결정사항

# 보고시기 **완화**

##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S1** ED 문단 66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관련된 재무제표와 동시에, 동일 보고기간에 대해 수행

### 실무적 제약 우려

1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동시 보고의 유용성은 인지하나 실무적 우려 제기

- 동시보고의 높은 비용 부담
- 정보 수집 가능성
- 작성자 준비도
- 추정치 사용으로 인한 낮은 정보 품질
- 국가별 요구사항과의 상호운용가능

### 내부 분석 · 검토

- A. 제기된 우려들은 시간에 따라 해소 가능
- B. 동시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위치가 상이해지고 정보 연계성 저하 가능
- C. 작성자 부담을 경감하고, ISSB 기준의 시행일 지연을 막기 위한 경과규정 도입의 필요성 제기

### ISSB 논의 결과

1

**동시보고를 수행하되 경과규정 도입**

경과규정은 첫번째 보고기간(**1년**)에 허용

#### 경과규정 상세

- 차년도 반기 재무정보 보고시점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도 공시 허용
- 반기 재무보고 의무공시 대상 기업
  - ▶ 다음 반기 재무보고와 동시 보고
- 반기 재무보고 자발적 공시기업
  - ▶ 직전 연차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 Scope 3 공시 **완화**

## Scope 3 GHG 배출량 정보

**S2** ED 문단 21(1)

### 모든 기업에 대해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

####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 우려

- 1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통제권한  
• 기업간 보고기간의 차이
- 2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로 인한  
데이터 수집 자체의 어려움
- 3 재무제표와 동시시점에 데이터 산출의 어려움
- 4 GHG프로토콜 카테고리 분류와 전환위험 간의  
불명확한 관련성
- 5 기업 간 측정방법의 차이

#### 내부 분석 • 검토

- A.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기준의 15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 공시
- B.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 문제 해결 방안
  - ① Scope 3 공시에 대한 시행일 연기
  - ② 증권감독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회피조항제공
  - ③ 적용 지침을 개발하여 지원
  - ④ 데이터 품질 증위 도입

#### ISSB 논의 결과

- 1 **Scope 3 공시 시행일 1년 지연**  
단, 역량을 갖춘 기업은 조기 공시 권고
- 2 **회피조항 도입 지지**  
단, 이는 각국 규제기관이 결정할 사안
- 3 **데이터 품질 증위 관련 추가 분석**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기반

#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완화** **개선**

## SASB 기준

###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 진행

#### 1 S1 ED 내 명시된 SASB기준은 현재 역할 유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시 SASB 공시 주제 고려

#### 2 S2 ED 부록 B는 비강제적 지침으로 변경

단, 연구를 거쳐 향후 의무지침으로 변경 가능 • 부록 B중 금융배출량 관련 공시는 본문 지위로 변경

#### 3 SASB 개선 및 관련 안건협의 우선순위 UP

'23.5월 협의문서 발표 예정

국제적 적용 가능성 빠른 개선 필요  
향후 계획에서 SASB 기준 개선을 우선 진행



# 금융 및 촉진 배출량 **개선**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 상업은행 • 보험 / 투자은행 및 중개산업

**S2** ED 부록 B

##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지표인 금융 및 촉진 배출량 공시 요구

### 정보 산정에 대한 우려

- 1 공시 주제 분류 관련 정보이용자 혼란 유발 가능성 및 금융 배출량 용어의 적절성
- 2 측정단위의 명확한 정의 및 정보 산출 방법론 규정 필요 • 파생상품 제외 필요
- 3 촉진 배출량 산출 방법론의 시장 성숙도
- 4 기본 데이터 제공자의 선 정보공개 필요  
• 시행일 지연 필요
- 5 Scope 3 of Scope 3

### 내부 분석 • 검토

- A. 제안 범위 | 공시 주제 및 설명 수정, 대체 용어 사용의 검토, 촉진배출량 방법론 적절성 논의
- B. 데이터 고려사항 | 금융배출량 공시 지연 논의, 중복 공시를 막으면서 전환위험 노출을 충실히 표시하는 방안 검토
- C. 산업분류 | 탄소관련산업 목록 검토, GICS와 다른 산업분류체계와의 매핑, 공시 관행 검토
- D. 복잡성 | 파생상품 관련 추가 조사연구
- E. 유연성 | 모범사례 개발 이전까지는 방법론 자체 공시 필요성 제기, 기업 준비를 위한 시간 검토

### ISSB 논의 결과

- 1 **부록B가 아닌 본문 지위로**  
단, 촉진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은 제거
- 2 **금융 배출량 용어 사용**
- 3 **GICS 체계 사용**  
탄소관련산업 공시 관련 모든 문단 제거
- 4 **기술적 내용 세부사항**  
파생상품 제외 • 집약도 분모 미규정  
• 방법론 공시 요구

# 시행일 **Final**

24.1.1일

IFRS S1 및 S2의 **시행일**은 **24.1.1일**이며 공시는 25년부터 수행

- 1 이해관계자들의 시급한 기준의 필요성
- 2 유럽 ESRS 및 미국 SEC 공시규정 시행일과 일치할 필요성
- 3 국가별 도입 장려 ▶ 기준 시행일과 **국가별 도입시점은 별개**이며, 국가별 적용시점은 각 국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
- 4 기업의 적용 장려 ▶ 완전한 시스템 구축 전에도 추정치를 활용한 공시가 가능하며, 공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음

**경과규정** 단, S1 ED 문단2를 적용할 때 기후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sup>1</sup>년을 도입하기로 결정 '23.4월

# 회계기준원 대응 및 주요 업무

—  
KSSB, KSSB AC 및 SSAF 외

03

# ESG 공시 의무화 압력 증대

ISSB 기준과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과의 상호운용가능성

2022~현재

ISSB 기준 /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



##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





# 회계기준원의 주요 활동

## 대응방안

### 1 국제 공시기준 논의 대응

국내 의견 수렴 및 국제 주요 기구 참여를 통한 적극적 대응

### 2 국내 기업활동 지원

주요 국제기준 번역 및 국내 적용 및 모범사례 구축

### 3 국내 적용가능한 공시기준 검토

국내 기준 검토를 위한 다양한 주제 논의

### 4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상호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주요 기구

IFRS재단 및 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KASB**

회계기준위원회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SSB**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 AC**

공식 자문기구

산업별  
전문위



IFRS 감독이사회

IFRS재단 이사회

**IASB**

IFRS 회계기준

**ISSB**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SAF**

공식 자문기구

**JWG**

EU, 美, 英, 日, 中

**IIAG**

투자자자문그룹

# 1 국제 공시기준 논의 대응

국내 의견 수렴 및 국제 주요 기구 참여를 통한 적극적 대응

**KSSB**

ISSB 기준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KSSB AC**

ISSB RFI 한국 의견 자문  
ISSB 최종 기준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의견개진

## ✓ SSAF 참여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를 적극 활용하여  
ISSB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국내 의견 개진

\* SSAF 초대회원국 | 한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임기 3년



## IFRS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Terms of Reference

The IFRS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 is a group of nominated members from jurisdic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volved in sustainability-related reporting. The members of the SSAF and the IFRS Foundation (Foundation) [will sign] a separat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ate to be inserted] which outlines the commitments SSAF members have made to participate in the Forum. This document sets out the SSAF's Terms of Reference.

## 2 국내 기업활동 지원

주요 국제기준 번역 및 국내 적용 및 모범사례 구축

**KSSB**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포  
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 및 국내 기업 공시 지원

**KSSB AC**

SASB 기준 및 ESRS 번역 자문  
국내 기업 모범사례 포함 연구 관련 자문



### 3 국내 적용가능한 공시기준 검토

국내 기준 검토를 위한 다양한 주제 논의

**KSSB**

ESG 공시기준 제정 지원  
국내 적용가능한 기준 검토 후 정부에 의견 전달

**KSSB AC**

KSSB 국내 기준검토 과정에 필요한 자문  
ISSB 기준 국문 번역안 자문

#### ✓ 주요 논의 주제

- 공시 의무화 범위 및 시기
- 적용대상
- 공시 채널 및 공시 시점
- 공시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내용

## 4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과 상호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1. ESG 공시는 ESG 경영, 인증,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ESG 생태계 구성요소들과 함께 고려 및 논의할 필요
2. 국내 공시제도 및 부처별 정보공개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러 정부 부처간 협의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 환경부를 포함한 주요 관계부처와 개별 논의 진행

### ✓ 주요 협의체

-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23.2월, 기재부 주관)
- ESG 금융 추진단 ('23.2월, 금융위 주관)



“

Thank you

leading to a more transparent economy

”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Session 2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나수미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2023. 4. 1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 수 미



# CONTENTS



I ESG 개요

II ESG 국내외 동향

III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IV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및  
손실리스크

V 중소기업 대응전략 및 정책의 방향

# I Chapter



## ESG 개요



-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함
- ❖ 최근에는 기업 경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 (「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중요성) ESG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고조됨에 따라, 기업은 ESG를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활용

- (기업목적 측면) ESG는 미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존립목적에 내재화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 합의를 지지하는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하는 요소



◆ 2005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더 나은 투자시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열린 “Who Cares Wins”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ESG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

- 기관 투자자, 자산 관리자, 애널리스트, 글로벌 컨설턴트,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을 모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인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 해당 컨퍼런스에서 ESG 요인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동의함

\* 세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운영을 하도록 정책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 하도록 장려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관장하며 기업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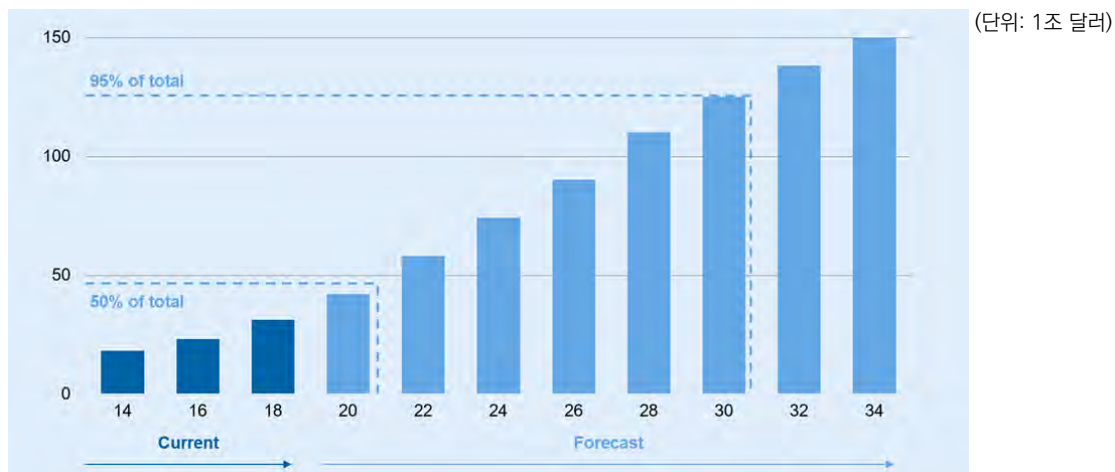
## ◆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의 출범은 전 세계적 ESG 투자 확산의 계기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발표
- UN PRI는 ESG integration의 개념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투자 분석 및 투자 결정에 ESG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무제표 정보만으로는 투자 위험을 측정하기 어려워 활용 가능한 비재무적 정보를 위험 측정 모델에 통합하기 위함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
  - UN PRI 서명 기관은 2021년 초 기준 3,634개이고 이는 2019년 상반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로 최근 들어 기관투자자의 ESG 고려가 더욱 가속화
  - 19개 국가에서 수탁기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2019년 기준)

- ▶ 이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슈의 기업을 배제하는 소극적 지속가능투자에서, 보다 나은 ESG 성과를 추구하는 적극적 지속가능투자로 전환해나가고 있음

- 세계 지속가능투자 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40조5000억 달러(약 5경5000억 원)
-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은 2030년까지 130조 달러 돌파를 예상

[그림 1] 전 세계 ESG 투자 총 운용자산(AUM) 규모 및 추이 예측



- ▶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신용평가사 등 글로벌 금융사의 ESG 평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19년 Moody's는 기업 신용평가 시 ESG 요인을 대략 33% 정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2020년 S&P는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 30% 정도는 ESG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2020년 탄소 배출 목표에 대한 EU 법률 위반 문제로 인해 자동차 OEM 회사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 사례가 있었음
- ▶ 최근 환경 등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부상과 이를 위한 전 세계적 규제 도입 경향은 글로벌 금융사들의 ESG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
  -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은 2021년 초 피투자기업 CEO 대상 연례 서한(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에서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
    - 해당 서한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낮은 평가는 결국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반면,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양질의 장기 자본이 유입되어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 전하며, 보다 적극적인 ESG 투자 의지를 드러냄



## 2021년 래리핑크 연례 서한 중 피투자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올해는 저희 고객을 대표하며,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까지 업종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혹은 상기 공시와 유사한 해당 업계 데이터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 그리고 (2)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기후 관련 재무 정보공개 태스크 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장 기준에 따라 기후 리스크를 공개할 것. 여기에는 파리협약의 목표인 기온 상승 2도 미만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는 가정 하의 기업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료: <https://www.blackrock.com/kr/larry-fink-ceo-letter>

- ❖ 즉 기업 입장에서 ESG의 확산은 지속가능경영을 부스팅(Boosting) 하는 외부자금조달(투/융자)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II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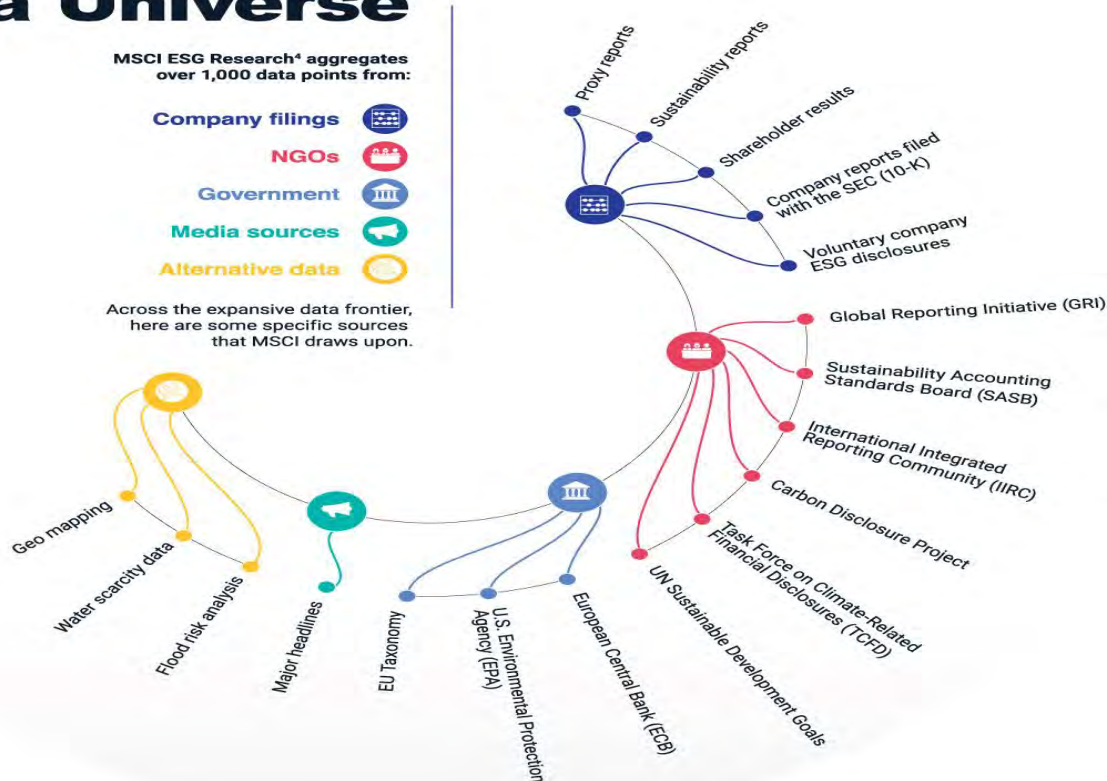


## ESG 국내외 동향

- ▶ ESG 평가 수준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그린워싱(Greenwashing)등의 문제로 기업이 보고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 이와 더불어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평가 체계의 중심을 애널리스트(analyst)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
  - 데이터 오염 이슈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함
  - 최대한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가능한 한 잦은 빈도로 ESG 위험을 측정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언론, 지리적 매핑 정보, 물 부족 데이터, 홍수 위험 등의 대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학습함

- ▶ 글로벌 ESG 평가사인 MSCI도 기업이 보고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AI를 통해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강조

## The ESG Data Universe



- ▶ AI 알고리즘으로 ESG를 분석하는 기관의 경우 기업의 자체 보고 자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AI 기술 발달로 ESG 평가사의 data collecting 및 data science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
  - 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ESG 위험은 무엇인지 경쟁사에 비해 어떤 ESG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실시간 정보를 통해 ESG 각 지표의 가중치(중대성)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 독일 아라베스크파트너스는 전 세계 7,135개 기업의 ESG 성과와 점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 'S-Ray'를 개발
    - 'S-Ray'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량은 많은데도 정보의 질은 좋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순간 방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ESG 위험을 측정
- ▶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뉴스, SNS 등 온라인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측정한 ESG 점수가 기업이 제공한 설문응답 기반의 ESG 점수보다 미래 채권수익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임(배경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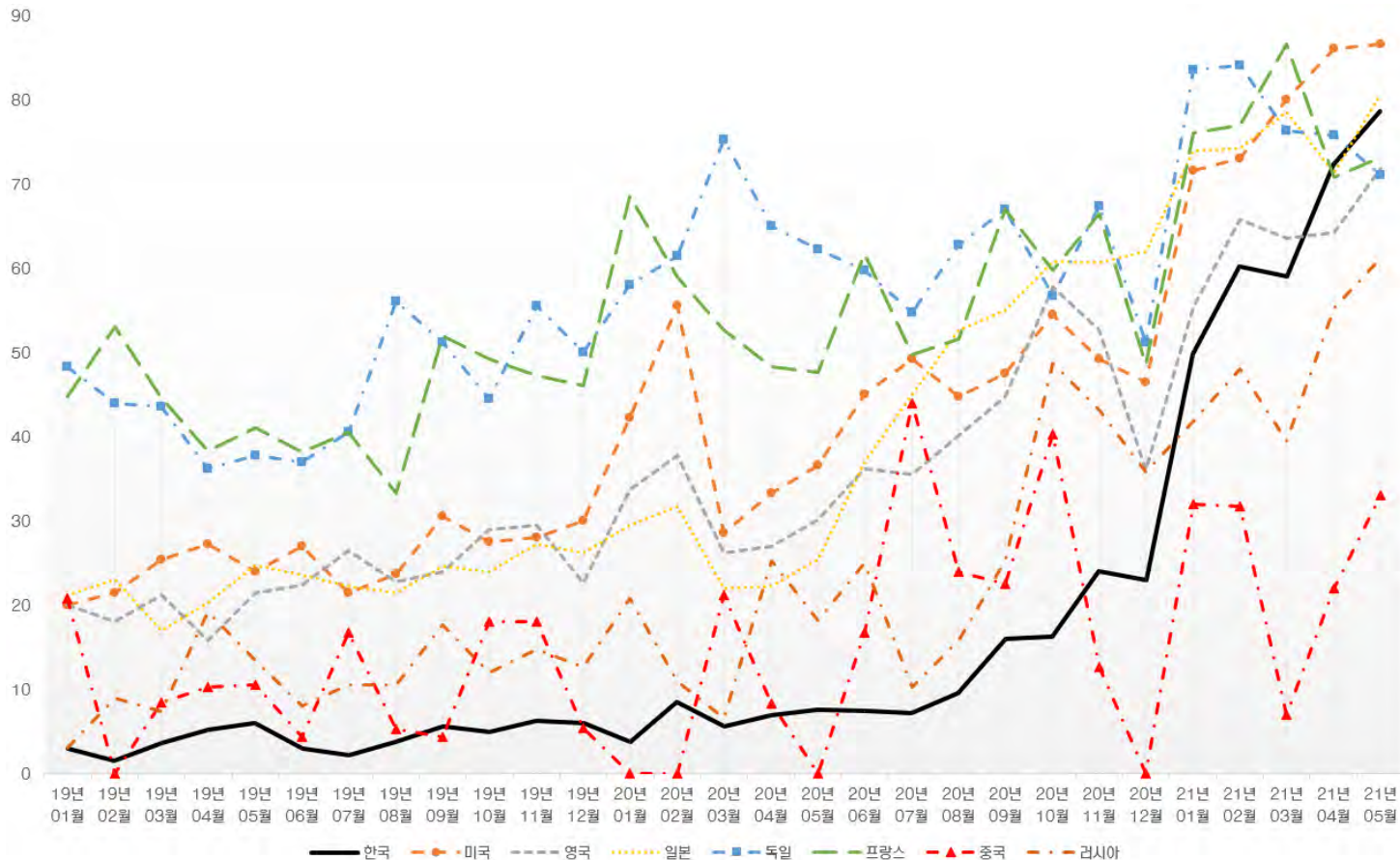
- ▶ 2020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규제 도입이 유럽 중심에서 전 세계적 움직임으로 확산하고 있음
- ▶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ESG 정보 “의무공시제도”를 발전시켜 옴
  - 유럽연합은 2014년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에서 기업의 비재무 정보의 공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역내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 이는 공급 및 하청업체와 관련한 준수 절차를 포함하여 ① EU 내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 ② EU 내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됨
  - 2021년 EU집행위는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Initiative on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EU 역내기업의 공급망(value chain) 전체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 입법 완료 시, EU 역내기업에게 공급 및 하청업체 전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ESG 부정 요소를 실사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 ▶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당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 공시 규칙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2019년 7월 상정되었으나 이는 기업의 약점을 공개할 뿐이며 기업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결됨
  - 2017년 6월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으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
-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ESG 의무 공시를 비롯하여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 규제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
  - 2021년 6월 미국의 상장 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미국의회 하원을 통과함
  - 2021년 7월 EU집행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같은 날 미국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약 3987조 원) 규모의 친환경 투자와 탄소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모음
  - 미국 기업 및 우방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측면도 존재



▶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구글 트렌드 ESG 검색량 지수도 이러한 동향을 드러내고 있음

- 바이든 당선 이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승 경향
- ① 미·영·일, ② 독·프, ③ 중·러의 세 그룹에서 ESG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동조화 경향



- ▶ 구글 트렌드 ESG 검색량 지수를 볼 때 한국의 경우 거의 관심이 없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는 관심도가 세계적 추세와 동조화
- ▶ 즉 최근 한국의 ESG 붐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 확산에서 기인했다기보단,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 주도의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제 도입 압력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임
  - ESG가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요인이 아닌 기업경영의 규제적 요소로 붐업(Boom-up)된 영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부족
    - 글로벌 시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ESG 경영”이란 용어가 “ESG 투자”보다 흔히 쓰이고 있으며, 여러 언론사의 ESG 경영 대상 수여 등은 ESG 투자가 가장 활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 연기금 중심의 ESG를 비롯한 책임투자에 관한 이슈는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으로 논의가 있어왔지만, 기업의 ESG 관련 사항 관리 및 공시 여부는 자율에 맡겨 왔음

- ▶ 대내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 방안과 ESG 관련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의무공시와 탄소세 도입 등 대외로부터의 ESG 이슈가 급격히 부상함에 따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에 정부 주도의 ESG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으며, 2022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
- ▶ 향후 표준화된 ESG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도 유럽과 미국처럼 ESG 정보 의무공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1월 금융위는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
    - (1단계) 자율공시 → (2단계 :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 → (3단계 : 2030년~) 코스피 모든 상장사 의무

# III Chapter



##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 ESG 확산,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제 도입, 지속가능한 소비의 확대 등의 환경 변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구매자 관리 등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도록 유인함
- ▶ 다만 2021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제 도입 경향으로 ESG 성과 준수 시의 인센티브보다 미달 시의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 ▶ 대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서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됨
- ▶ 또한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들도 ESG 확산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음
- ▶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외부자금조달 환경과 구매자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봄

## 기업이 처한 환경의 변화

## 일반 환경

- 경제적 환경
  - ESG 투자 확산
- 국가/정치적 환경
  - 지속가능경영 규제
- 기술트렌드 변화
- 사회문화적 환경 등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 확대



## 내부 환경

- 자금조달 환경
- 구매자 환경
- 경쟁자 환경
- 공급자 환경
- ...

◆ ESG 투자 및 규제 확산이 외부자금조달환경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대기업을 비롯한 상장기업이 받고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의 ESG integration이 보편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상장기업의 경우 ESG 채권 발행, ESG 투자 등 용자와 투자 전체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

- ESG 투자의 확산은 물론이고 은행권에서도 대출심사 요건으로 ESG 수준을 고려하겠다고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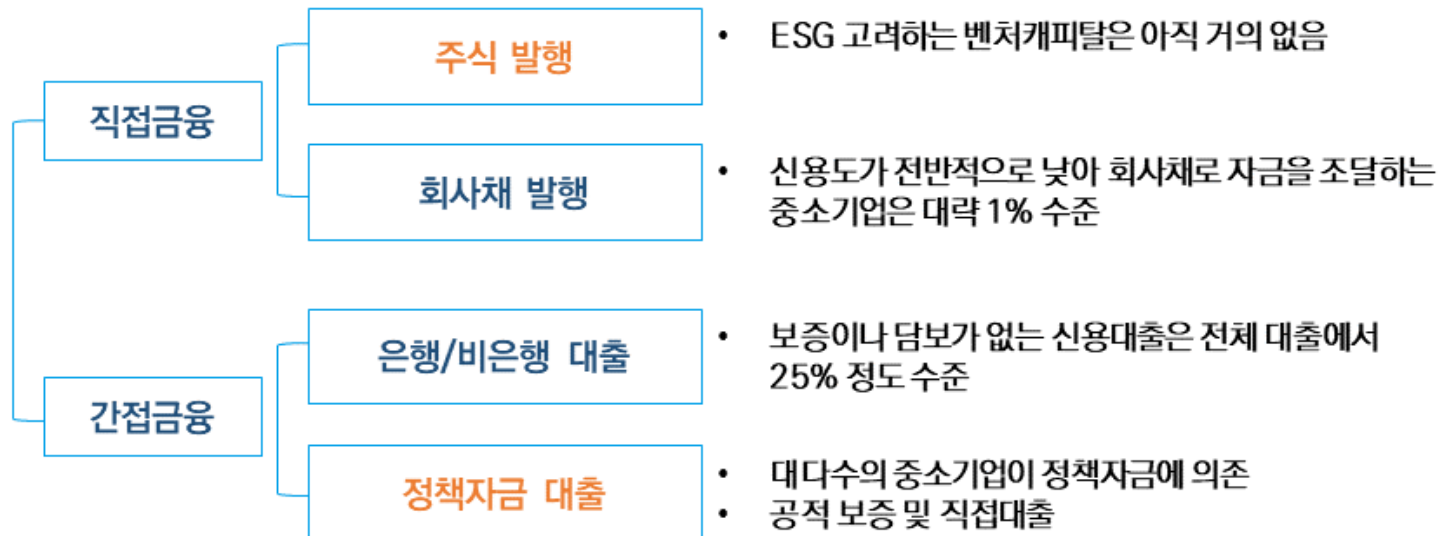
- ESG와 관련한 회사들의 채권 시장도 커지고 있는 추세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ESG 채권과 SLB(Sustainability-linked bond)가 있음

\* ESG채권이 조달한 자금을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 ESG 관련 프로젝트에 써야 한다면, SLB는 자금 소요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성과를 채권 금리와 연계하는 방식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부 자금 조달 환경

-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담보대출, 벤처캐피탈의 직접투자가 주요 외부 자금조달원으로서 ESG 성과와 연계되는 부분은 없으나, ESG 투자의 점차적인 확산으로 중소기업 금융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20년 말 이후로 PE의 중소기업 해외 M&A 시 ESG 리포트를 요구 받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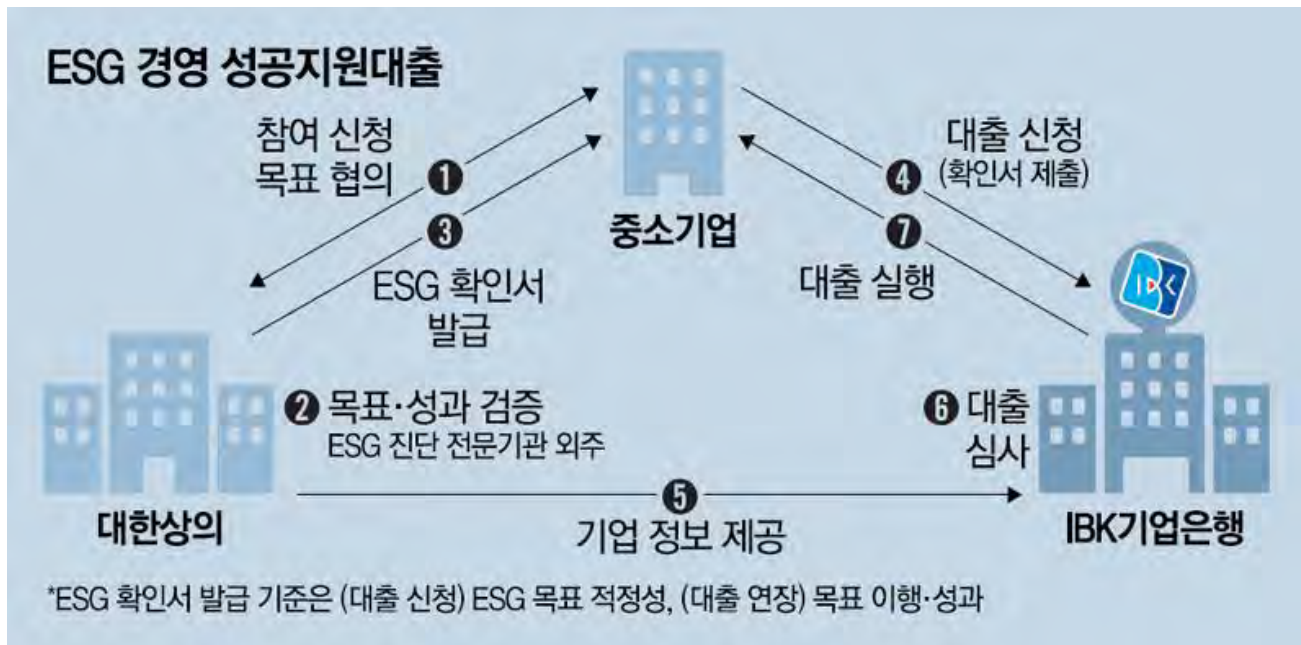
- ▶ 다만 공적 영역에서부터 중소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요인으로서 자금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조금씩 제시하고 있음
-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4월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기부가 마련한 자가진단용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반영해 은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 2월 기업은행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ESG 성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협력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 ▶ 이는 중소기업의 ESG 성과 개선이 금융환경에서 대출의 영역에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게됨을 의미함
- ▶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의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최근 중소기업 ESG를 위한 모태펀드를 할당하고, 중소기업 ESG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정부에서는 직접금융의 영역에서도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접목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모델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
- BNP파리바, ABN암로 등 세계적 은행도 참여 중인 '지속가능성 연계대출(SLL·Sustainability Linked Loan) 모델'은 기업이 다양한 ESG 항목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목표와 평가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하면 금융 지원을 받는 구조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ESG 지속가능성 연계대출'을 신청하고 이행 목표 설정에 따른 'ESG경영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됨
- 지원받은 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ESG경영 확인서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부 자금 조달 환경

##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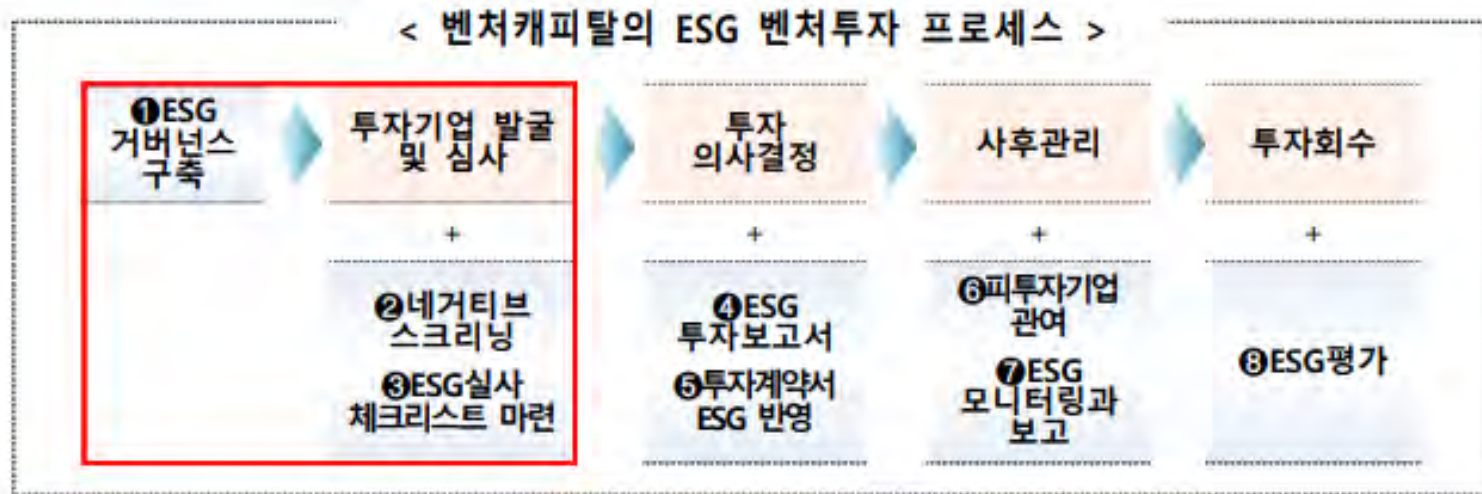
## 중진공·KB국민은행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업무협약

- 지난 11월에 중기부가 마련한 자가진단용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국민은행이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를 통해 이에스지(ESG) 중소기업 선별에 적극 활용함
-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에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상담(컨설팅) 등 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별한 후 국민은행 및 중진공 지원사업 연계 대상으로 추천함
- 국민은행은 중기부 추천기업이 이에스지(ESG) 대출 전용상품(케이비 그린 웨이브(KB Green Wave) 이에스지(ESG) 우대대출)을 이용할 때 추가 금리인하(최대 0.4%p)를 적용함
- 중기부는 국민은행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이 포함된 심층 상담(컨설팅)과 이에스지(ESG)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함

## ➤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 정부는 모태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방식과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ESG 전용펀드 167억원 시범 조성
-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여 ESG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에 60%이상을 투자함
- 벤처캐피탈의 ESG 벤처투자 거버넌스 구축 의무화 :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內 ESG 벤처투자정책수립과 ESG 투자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등 의무화
-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배제) 전략 도입 :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 의무화
- 기업 성장단계별·산업별 ESG 투자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실사체크리스트를 제공
- ESG 벤처투자에 대한 VC의 사후관리 자율성 부여 : 표준 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이후단계부터는 운용사 자율성을 허용

## ▶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 ▶ 이러한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움직임과 ESG 투자의 점차적인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상의 민간 금융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아직 실현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무 지표가 미흡하지만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 민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AI기반 ESG평가 시스템 개발하고 있음
-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도 ESG 성과를 잘 관리할 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인센티브 요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 중소기업 ESG 금융을 지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소” 사례

-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소”는 2018년 정부 지원을 토대로 AI와 ESG 기반의 중소기업 ESG 평가모델을 개발
- 재무 지표가 미흡하지만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창출
- ESG평가정보는 지속가능 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
- SCB(Sustainability Credit Bureau) 등급을 제공하는 인가 받은 신용정보사가 산정한 중소기업 등급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제공할 때 활용 가능
- 금융기관의 경우 SCB 등급을 통해 차주 기업의 리스크를 확인하는 동시에 ESG 리스크 개선을 조건으로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SLL)을 도입할 수 있음
- 금융시스템 내에서 지속가능금융(Sustainability Finance)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유도

## ■ ESG 확산이 중소기업의 구매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름

### ◆ B2B 기업

- 대기업의 ESG 위험 관리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ESG 성과에 따라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
- Apple, BMW, DHL 등의 글로벌 대기업은 '공급망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 ESG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사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신규 거래 여부 판단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국내 대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협력사를 포함하는 공급망 전반의 ESG 위험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 전자, ICT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산업 연합체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회원사와 회원사의 협력사 전체에 대해 노동, 안전보건, 환경 등의 RBA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들도 RBA에 가입하여 협력사 ESG 위험 관리에 동참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는 역내기업 공급망 전체 실사 의무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ESG 리포트 요구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ESG 위험 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동

## ▶ B2C 기업

- ESG 확산으로 지속가능경영이 강조되고 이와 맞물려 윤리적 소비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 확산의 환경 변화 아래, B2C 기업의 ESG 성과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 하지만 B2C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이러한 영향을 적게 받음
  -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관계에서 주요한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로 기업의 가시성 수준을 지적하고 있음(Young, Makhija, 2014; Wang, Qian, 2011; 박지현, 김양민, 2014)
  - 즉 기업이 훌륭한 ESG 성과를 내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쉽지 않아 지속가능경영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적음
- 다만 SNS 발달로 인한 정보의 급속 확산 효과는 B2C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동구발”은 B2C 중소기업이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의 ESG 성과를 홍보하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켜 매출 확장으로 이어진 사례

## ▶ B2C 기업

### B2C 중소기업 “동구밭” 사례

---

동구밭은 세제 등 고체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2017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2019년 2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0년 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구밭은 ESG 측면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전체 직원의 최소 50%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은 고체 비누 제품을 판매하였고 실제로 동구밭 비누 사용을 통해 줄인 플라스틱 양이 만 kg 이상에 달함을 SNS를 통해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물성 원료를 사용 하지 않는 비건 공식 인증마크까지 획득해, 탄소 배출 절감 및 식물성 원료에 대한 윤리적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였다.

---

## ▶ 수출 기업

- 유럽이나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에 대한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중소기업은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처함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수출기업 1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납품하는 과정에서 사회책임 수준의 평가를 요구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평가 받은 기업의 19%는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협력사 선정 배제’(61%),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 ‘납품량 축소’(15%), ‘거래 중단’(7%)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됨

### ■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안전심사 통과 못해 수출 불발

소규모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미국 글로벌 유통사에 납품을 준비하던 중 CSR 평가를 요청 받았다. A사는 150만원의 심사비용을 내고 CSR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은 무산됐다.

### ■ CSR 인증비용 부담에 거래 중단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 B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에게 윤리적 제조 인증 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인증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 B사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에 수천만 원이 들어 인증을 포기했고, 이후 거래가 끊기고 말았다.

###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교시설 건설 요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C사는 최근 공장부지 내에 기도시설을 세웠다. 글로벌 고객사가 근로자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배려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사는 “종교시설을 세우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어 수천만 원을 들여 기도시설을 세웠다”고 말했다.

## ▶ 수출 기업

-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빠르게 넘는 경우 아래의 사례처럼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기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 역내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국내 기업들이 편입될 기회가 될 수 있음

### ■ ESG 관리로 화장품 원료 납품업체 선정

화장품 원료 전문기업 K사의 경우 글로벌 화장품 제조사인 L사에 납품하면서 ESG 평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시 체계를 구축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을 뿐더러 ESG 관리 이후 매출 65% 증가하였다.

### ■ 해외 선박용엔진 제조사에 장기계약 사례

선박엔진에 쓰이는 부품을 제조하는 S사는 ESG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적 발간 등 글로벌 선박엔진 제조기업 W사의 평가 기준을 상회하여 450억 원 매출 증가를 가져온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 ESG 확산하는 기조의 환경은 간접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발전원가 등 비용 상승을 초래
  - 유럽연합(EU)은 '22.3.15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과에 합의
  -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유인함
  - 한국의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석탄발전은 축소되고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될 계획
- ▶ 한전의 전력구입 단가는 장기적으로 우상승할 전망
  -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과거 벙커C유를 활용하던 에너지공급원을 전기 등으로 교체 예정

# III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공급자 환경(비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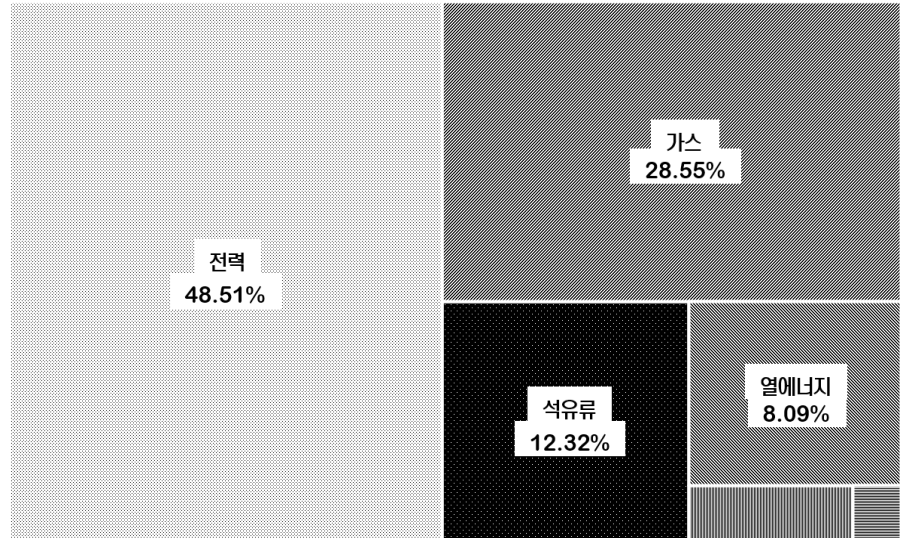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에너지원 중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높아 전력비 상승의 타격이 큼

■ 석유류 ■ 석탄류 ■ 가스 ■ 열에너지 ■ 전력 ■ 기타



중소기업의 소비 에너지원 종류별 비중

■ 석유류 ■ 석탄류 ■ 가스 ■ 열에너지 ■ 전력 ■ 기타



중견 및 대기업의 소비 에너지원 종류별 비중

❖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정상 전력 사용을 줄이기 힘든 실정임

- 중소기업, 특히 대표적 전력다소비 업종인 뿌리업종은 1,000원의 영업이익 중 439.6원을 전력비로 지출(43.96%)

- \* 뿌리산업법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 전산업평균인 14.9%, 제조업평균인 26.8%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

- 중소기업의 51.3%가 전력비가 상승하더라도 '현재 전력 소비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없다'고 응답함

- \*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비용부담 현황조사, '21.11

❖ 뿐만 아니라 향후 탄소중립 정책 상 전환 대상인 석탄류, 석유류 에너지원 중 기업이 소비하고 있는 총량의 96%를 중소기업이 소비하고 있어, 중소기업 전체에서 전환에 따른 비용도 크게 발생할 예정

# IV Chapter



##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및 손실리스크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단 손실리스크가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임
- ESG 금융상품은 대부분 상장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B2C가 아닌 B2B인 경우가 많아, ESG 성과 제고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사업에 중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
- 반면 중소기업이 ① 협력사인 경우 대기업의 공급망 전체로 확대된 ESG 관리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 리스크 발생, ② 수출기업인 경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규제 적용으로 비용 증가 내지는 납품 불가의 리스크 발생
- 대기업으로부터 ESG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시 제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손실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요인임
- 해외 정부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규제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나 납품 거절과 같은 외부 충격은 수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

- ▶ ESG 확산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는 제조 중소기업의 전력비,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의 간접 비용을 상승시킴
- ▶ 중소기업은 ①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높고, ②원가에서 전력비의 비중이 크며, ③공정상 전력 사용을 줄이기도 힘든 실정이라 전력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함
- ▶ 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가스로 에너지 전환이 계획되어 있는 석탄류 및 석유류 소비 비중도 거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및 손실 리스크 정리

## ESG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및 손실리스크 요인

구분	중소기업 유형별 예상 영향
인센티브 요인	(1) <b>(B2B)</b> 선제적 ESG 성과 달성 시, 다른 협력사와의 공급 경쟁에서 우위 선점 가능
	(2) <b>(B2C)</b> ESG 성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윤리소비 트렌드와 부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매출 증대 가능
	(3) <b>(수출기업)</b> 선제적 ESG 성과 달성 시, 중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새로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4) <b>(자금)</b> 기존 은행여신은 기업 재무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나, 비재무 리스크 AI 분석 및 ESG 기반의 지속가능 여신심사 제도를 중소기업 여신심사에 적용할 경우, ESG 성과가 좋은 중소기업은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 공적 주도로 중소기업도 ESG 성과와 자금 조달이 연계될 수 있게 됨
손실리스크 요인	(1) <b>(B2B)</b> 수요기업이 공급망 ESG 관리의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ESG 성과가 낮을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 존재
	(2) <b>(B2C)</b> ESG 성과 부진 요인이 소비자의 관심사나 주요 현안과 맞닿아있을 경우 매출 감소 가능성
	(3) <b>(수출기업)</b>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 성과 미달 시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음, EU 역내기업과 거래 시 갑작스레 ESG 관련 공시 의무 규제에 직면하여 수출 비용 증가 또는 거래 단절 위험 존재
	(4) <b>(중소기업 전반)</b> 전력비, 에너지 전환 비용 등 간접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 이익 감소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



# V Chapter



## 중소기업 대응전략 및 정책의 방향

## ■ 1. 단기적으로는 ESG 환경 변화 아래 중소기업 보호

### ④ 중소기업 경영자의 ESG 인식 확대 지원

-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ESG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ESG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업기회를 상실하거나 시장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세미나 등의 기회에 노출
- 정부에서 만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2022)」 및 중기 중앙회 'ESG규정례·우수사례집(2023)'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④ ESG 위험 발생 시 접근할 수 있는 긴급 지원 방안 마련

- ① (해외 수출 시, 대기업 납품 시, M&A 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ESG 리포트를 요구 받는 경우 찾아갈 수 있는 긴급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실사부터 리포트 작성까지 지원(전문기관 중개 및 비용 무이자 대출)
- ② ESG 평가를 근거로 공급망 상에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할 시,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
  -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중기중앙회, 2023)
  - 평가 수행 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었음

# 중소기업 대응전략 및 정책의 방향

- 2.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여 ESG 확산 환경 아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강점(Strength)

-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에 영향력 있는 의견 전달 가능
- 작은 규모로 신속한 전환 가능

## 약점(Weakness)

- 전반적으로 낮은 ESG에 대한 인지 수준
- ESG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인적, 물적), 여력의 부족
- 공급망 상에서의 낮은 협상력

## 기회(Opportunity)

- (B2B 및 수출기업) 선제적 ESG 성과 달성 시, 공급 경쟁에서 우위 선점 가능
- (B2C) ESG 성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윤리소비 트렌드와 부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매출 증대 가능
- (자금) ESG Integration의 확장으로 자본비용 감소 예상
- ESG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의 기회

## 위협(Threat)

- (B2B) 수요기업이 공급망 ESG 관리의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ESG 성과가 낮을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 존재
- (B2C) ESG 성과 부진 요인이 소비자의 관심사나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을 경우 매출 감소 가능성
- (수출기업)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유인이 부족,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

# 중소기업 대응전략 및 정책의 방향

## ■ 2.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 ▶ ESG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 사례

- E 영역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 사례

업종	· 제조업(친환경 포장재)
위치	· 경기도 평택(임직원 80명)
활동 Driver	·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기대 증가 대응 필요 (신시장 선점을 통한 경영성과 창출)
실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R&amp;D를 통한 생분해성 Film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부담 최소화(자연 분해)</li> <li>- '환경 마크' 선도적 획득</li> </ul> </li> <li>·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성 Film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빨대, 쇼핑 봉투, 식탁보 등)</li> </ul> </li> <li>· 고객의 친환경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일상생활 사용 제품을 통한 친환경 메시지 공유/전파</li> </ul> </li> </ul>
시사점	· 우리의 사업을 통한 ESG 가치 실현이 핵심(이해관계자 기대에 대한 빠른 대응)



## ■ 2.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 ◆ (W-O)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추구 지원

- (낮은 인지의 보완) 공적 영역에서 중소기업에 ESG 환경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
- (기회 포착 위해 정책자금 공급) ESG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ESG의 특정 영역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필요  
E.g., 수출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환경 개선, B2B 기업의 ESG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프로젝트 펀드 성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망 상에서 새로운 거래 기회를 잡도록 유도
- (공급망 상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마련) ESG로 인해 공급망 상에서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될 시  
이의제기가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 2.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 ④ 글로벌 규제 경향에 발맞추어 구체적 ESG 달성 목표 제시

- 한국도 미국과 EU의 목표와 같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로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개별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선 미비함
- 산업별, 단계별, 중소기업 유형별로 실제 추구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 ④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 대기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추진 아래 통상적 시장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 개별 중소기업의 ESG 성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할을 정책자금이 감당해야 함
-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ESG를 평가하고 인증하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광범위한 개입보다는, 개별 중소기업이 직면한 특정하고 구체적인 ESG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적절





## ■ 2. 중소기업이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 ④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특별 자금 공급

-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협력사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성과 개선을 위한 자금'(19.4%), '교육'(10.2%) 등을 들었으나, 실제 지원은 '교육'(39.8%), '컨설팅'(25.0%)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고, 정작 필요한 '시설·설비·자금 지원' 부분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응답함(중기중앙회, 2023)
- ESG성과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 필요

### ④ 대·중소기업에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추구할 유인 제공

-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협력사 CSR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를 대·중소 동반 ESG 성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 대기업이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ESG 위험 대응과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때 유인 제공 필요
- 예를 들어 지속가능경영 추구를 위한 대기업의 인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ESG 인력 및 조직을 보완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활동 내용이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측면에서 지원



## ■ 3. 민간 주도 ESG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 주가종목리포트가 증권사마다 내용이 다르듯 ESG 평가는 각 평가사의 역량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 경쟁력 있는 ESG 평가사는 이미 고도의 data science 영역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유인이 없는 공적인 영역에서 따라잡기 힘든 부분
- 공공부문에서 평가체계를 제공한다면 도태될 것이고, 도태되지 않도록 규제화한다면 세계에서 한국 ESG 생태계는 갈라파고스화 될 것(단순히 정책지원 선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평가와 인증 시스템 방식은 지양해야 함)
- 중소기업 ESG 평가도 올해 들어 급격히 시장 참가자가 증가하는 상황
-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 주도 활동이 원활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함

## ■ 4. 정기적인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ESG 정책의 고도화 필요



# 감사합니다.

smna@kosi.re.kr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Sesson 3

# ESG 투자의 현실적 접근

강성부 대표이사  
KCGI





## ESG 투자의 현실적 접근

2023년 4월 19일

KCGI 강성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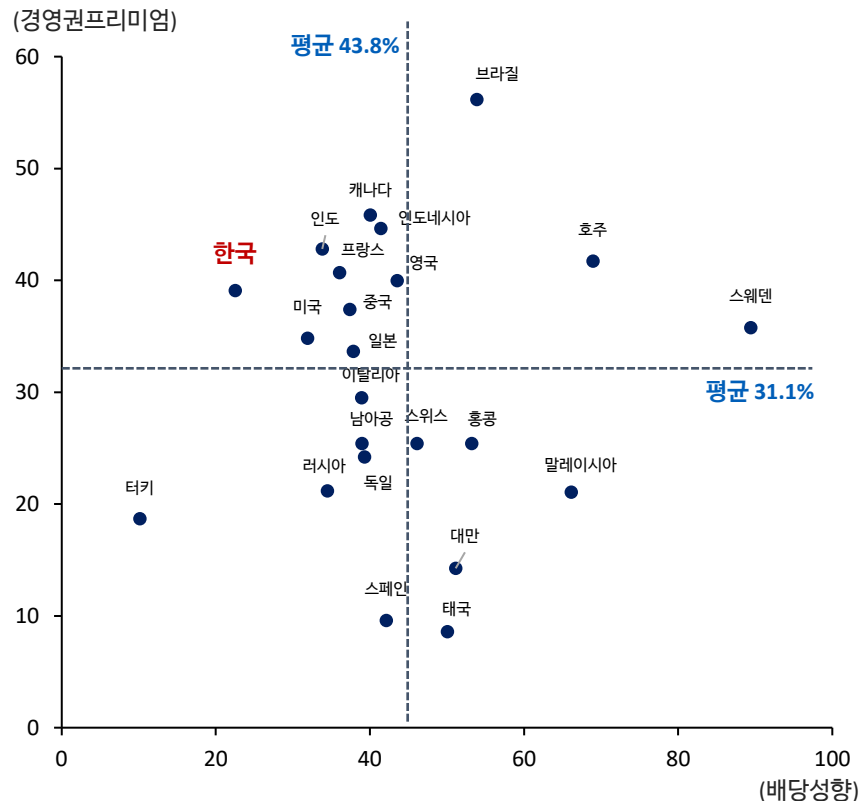
## Section I. 한국에서 주식 못해먹겠네

---

# I. 한국에서 주식 못해먹겠네

- 한국의 높은 경영권프리미엄과 낮은 배당성향
- 한국 기업의 ESG 등급 주요국 중 최하위권

글로벌 각개국의 배당 성향과 경영권 프리미엄<sup>1)</sup>



주요 17개국 중 한국기업의 ESG 평가등급 순위

평가사	ESG	G	E	S
무디스	17위	17위	16위	17위
레퍼니티브	15위	15위	13위	15위
블룸버그	17위	15위	14위	12위

-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등급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
- 특히 거버넌스(G)는 환경(E), 사회(S) 대비 매우 미흡

Source : Bloomberg, Capital IQ,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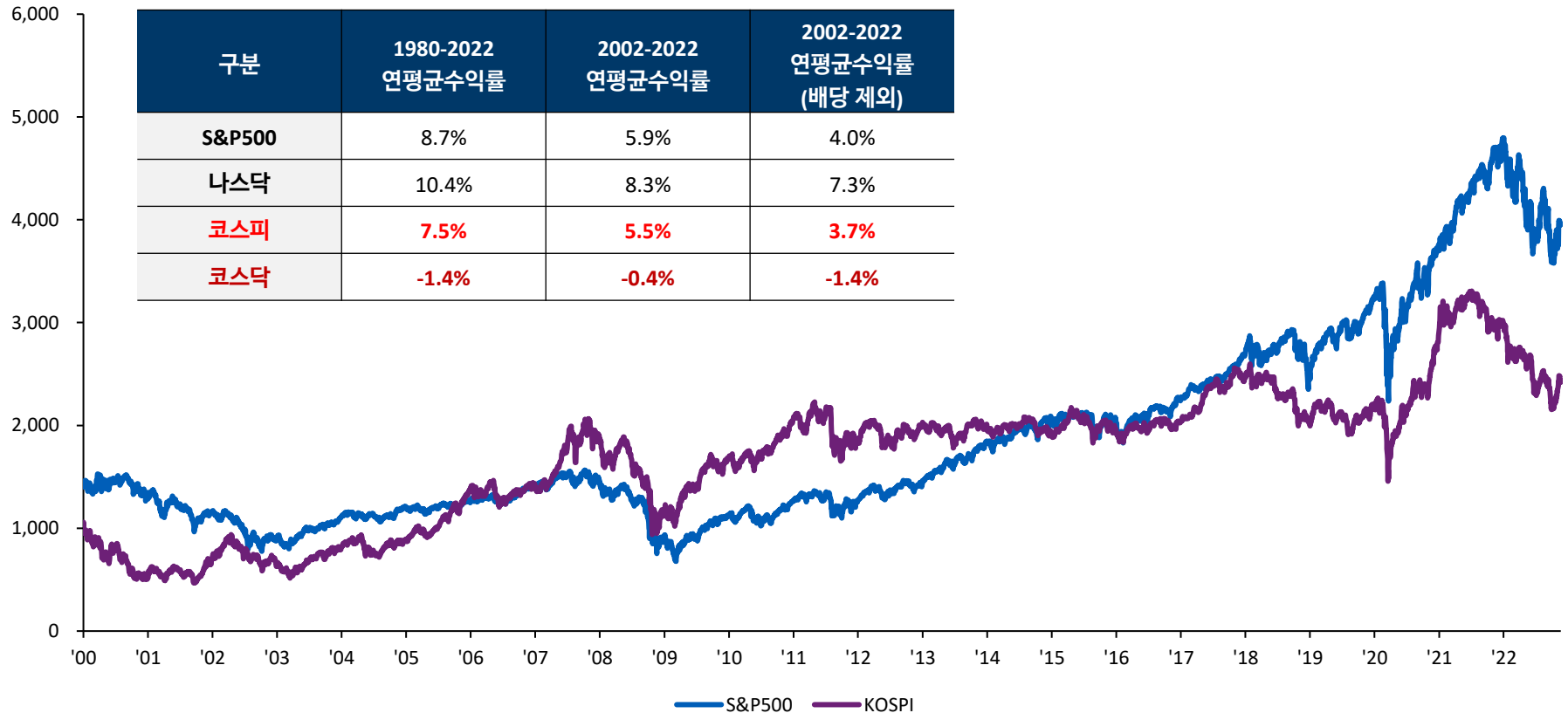
주1) 경영권프리미엄: 2013년 이후 거래사례 평균, 거래 1일전 시가 대비 거래가격 프리미엄



# I. BOXPI - 한국에서 주식 못해먹겠네 (Cont'd)

- KOSPI 및 S&P500의 추이 비교
- KOSPI :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때는 1등

KOSPI 및 S&P500 추이



Source : CapitalIQ

# I. 한국에서 주식 못해먹겠네 (Cont'd)

- WHY KOREA DISCOUNT?
- 한국 금융시장의 놈, 놈, 그리고 놈 (Norm)



좋은 기업

## 현실

- 글로벌 경쟁력
- 성장동력 확보
- 신산업 역량 강화



나쁜 주식

-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대비 PER 1/1.6, PBR 1/3.5 수준)
- 20년째 박스피
- 자본 시장 기능 상실



이상한 대주주

- 사적 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 편법 증여
- 도덕성 결여

## 원인

- 사업구조 개편 성공  
(IT, BT, 5G, 배터리)
- 구조조정 성공으로 최악의 위기 탈출
- 생산 기지에서 혁신 기지로

- 아시아 꼴지 수준 지배구조  
(WEF: 글로벌 138개국 109위, CLSA: 아시아 12개국 중 12위)
- 부동산 자본주의/저성장
- 신뢰 부족과 패배의식  
(연기금, 퇴직연금도 안 사는 한국주식)

- 유교적 장자 상속 및 승계 문화
-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 험거운 규제 환경

## 대안

### 코리아 프리미엄과 금융한류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해야
- 대주주와 일반 주주에 유리한 공통가치 추구
-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 지배주주 보호

-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경감
- 노동 시장 유연성 개선

### 일반주주 보호

- 이사의 자격 및 책임 강화
-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의무화

### 올바른 승계 문화 정착

- 금융 자산
- 지적 자산
- 인적 자산
- 사회적 자산

균형 승계

## Section II. ESGGG

---

## II. ESGGG

- ESG란?
- ESGGG : 핵심은 거버넌스 (Governance)

ESG란?	투자 및 경영의사결정에 재무요소 외에도 <b>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및 G(Governance, 지배구조)</b> 를 고려하는 것	
투자에 ESG를 왜 고려하는가?	투자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li> <li>• 투자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덜 부정적이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선택 가능 *이해관계자(= Environment &amp; Social) :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국가, 환경 등</li> <li>• 투자자는 이러한 선택적 투자를 통해 <b>E와 S가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b>, 좋은 투자성과도 시현 가능</li> </ul>
	투자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SG 지표가 우수한 기업은 리스크 低, 지속가능성 高 → 기업가치 &amp; 투자성과 高</b></li> <li>• <b>ESG 지표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 환경규제, 노사갈등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 → 기업가치 &amp; 투자성과 低</b></li> <li>• ESG 투자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시, <b>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高 → 선순환 구조</b></li> </ul>
E와 S, 그리고 G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Environment, 환경)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b>물리적 환경</b></li> <li>• S(Social, 사회)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b>사회적 환경</b></li> <li>• G(Governance, 지배구조) :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b>E와 S를 작동하는 원리이자 컨트롤 타워</b></li> </ul>	
좋은 거버넌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ESG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인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 → E S <b>“G” “G” “G”!!</b></li> <li>• 좋은 거버넌스는 <b>보유 주식 수만큼의 권리(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행사할 수 있도록</b> 합리적으로 설계된 구조</li> <li>• 가장 기초적인 이해관계자인 <b>모든 주주의 권리가 우선 보호</b>되어야, 다른 이해관계자인 E와 S로 뺏어 나갈 수 있음</li> </ul>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 ESGGG : 핵심은 거버넌스 (Governance)
-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장애물 : 지배주주 vs 일반주주 간 갈등

### 거버넌스의 장애물

-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가 각자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한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구조
- 가장 큰 장애물은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 Why? : 지배주주(소위 "오너")가 낮은 지분율(의결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저해

### 지배주주가 의결권 대비 막대한 영향력 행사 시

#### 부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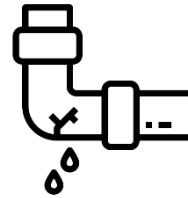
*Tunneling*



- ✓ 지배주주 개인 지분율 높은 계열사로 이익 이전
- ✓ 회사자금으로 비자금 조성
- ✓ ...

#### 부실 계열사 지원

*Propping*



- ✓ 지배주주 개인적 욕심을 가진 사업에 무리한 투자
- ✓ 적자기업에 계속된 자금지원
- ✓ ...

#### 기회유용과 편취

*Expropr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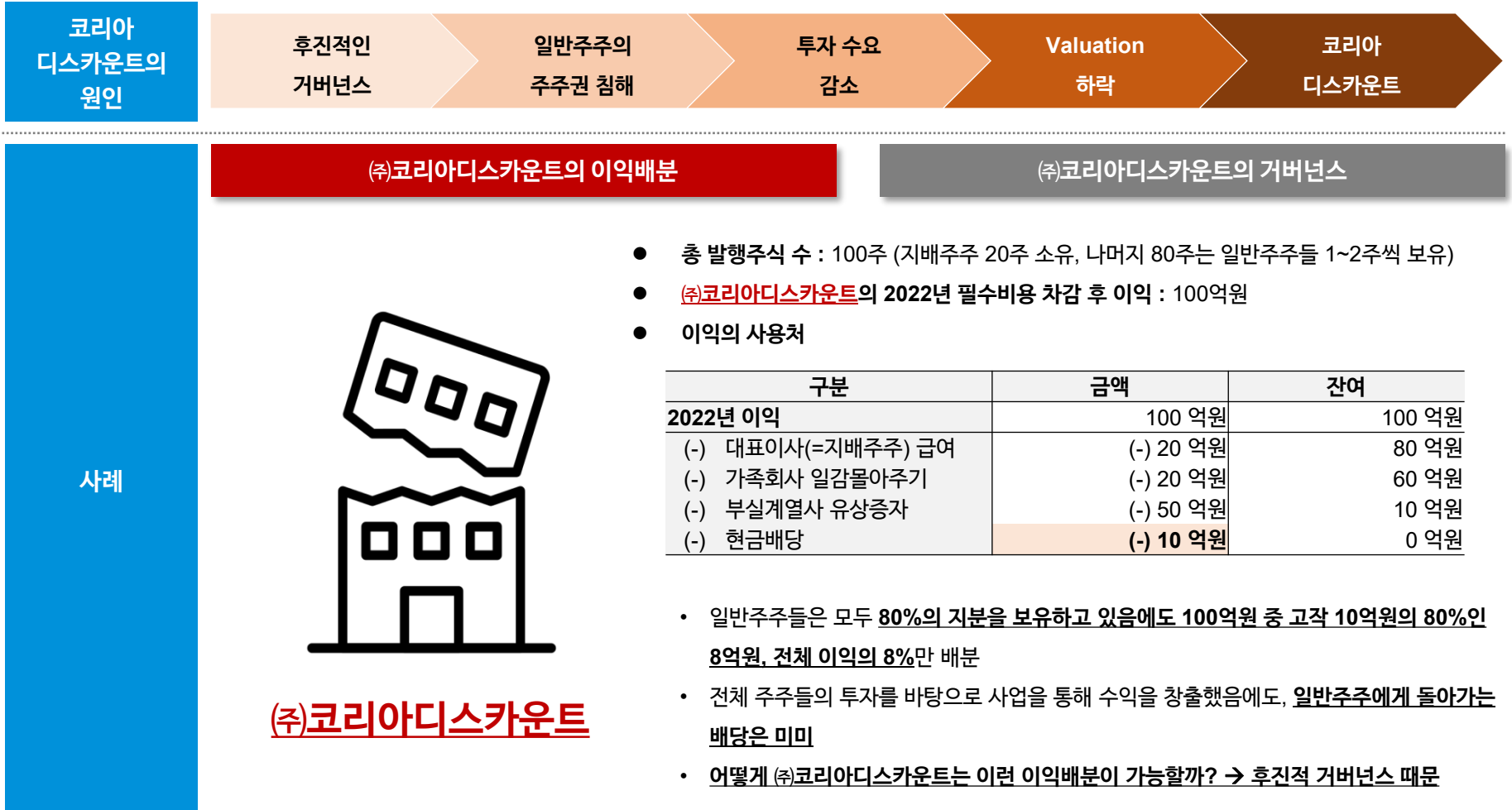


- ✓ 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개인회사를 통해 진행
- ✓ 일감몰아주기
- ✓ ...

'1주=1의결권'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 II. ESGGG (Cont'd)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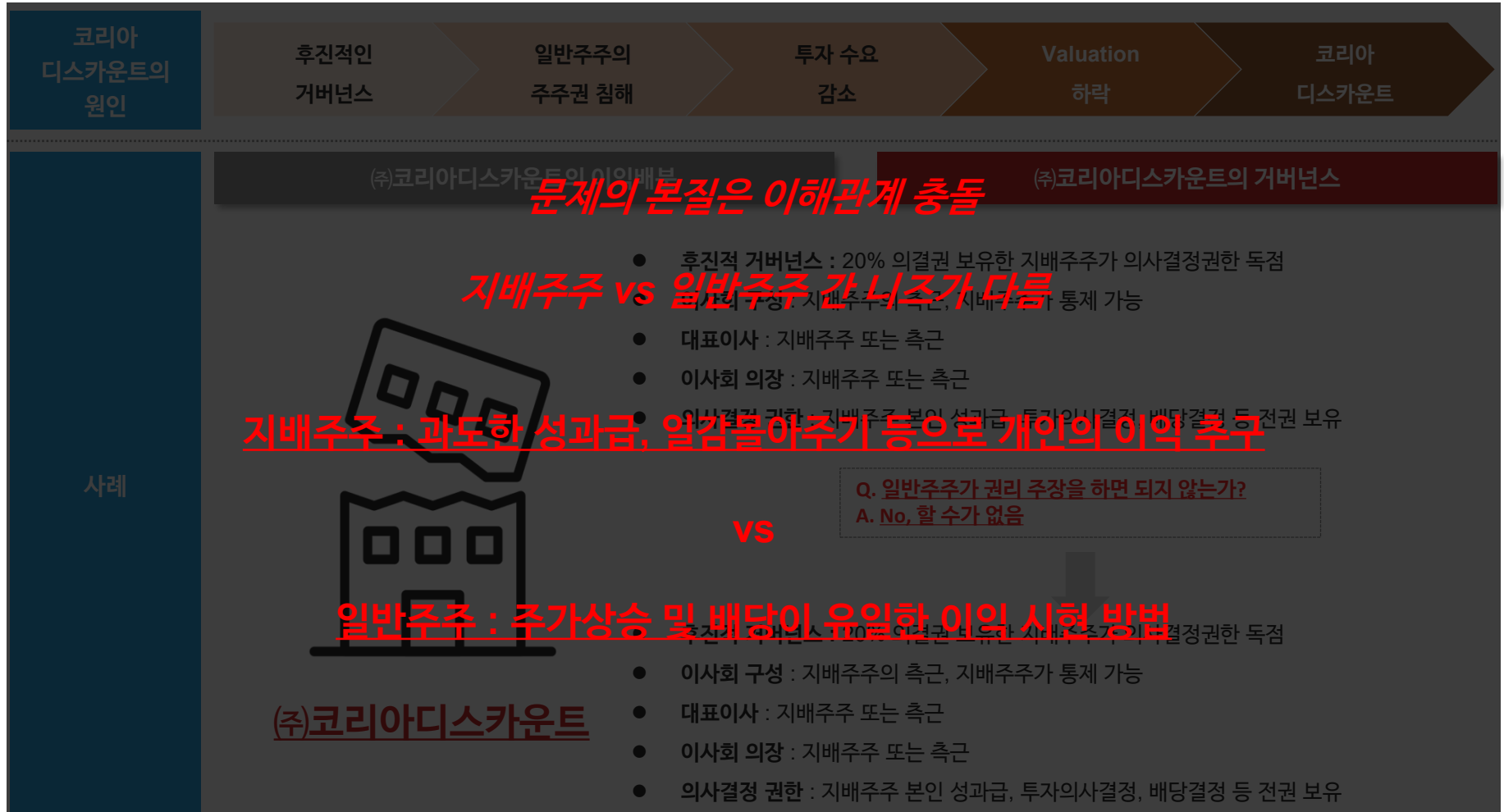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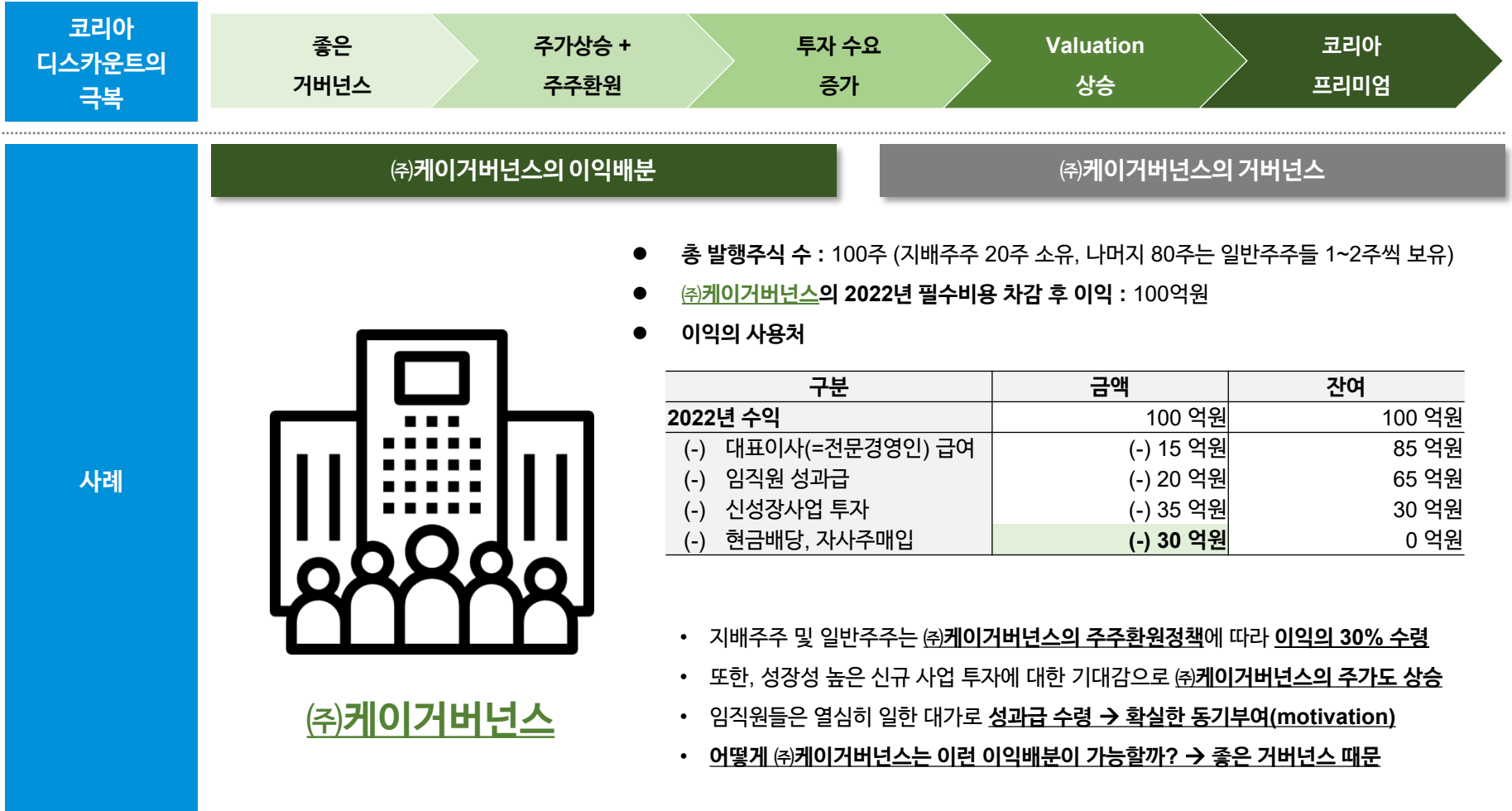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주)케이거버넌스

## II. ESGGG (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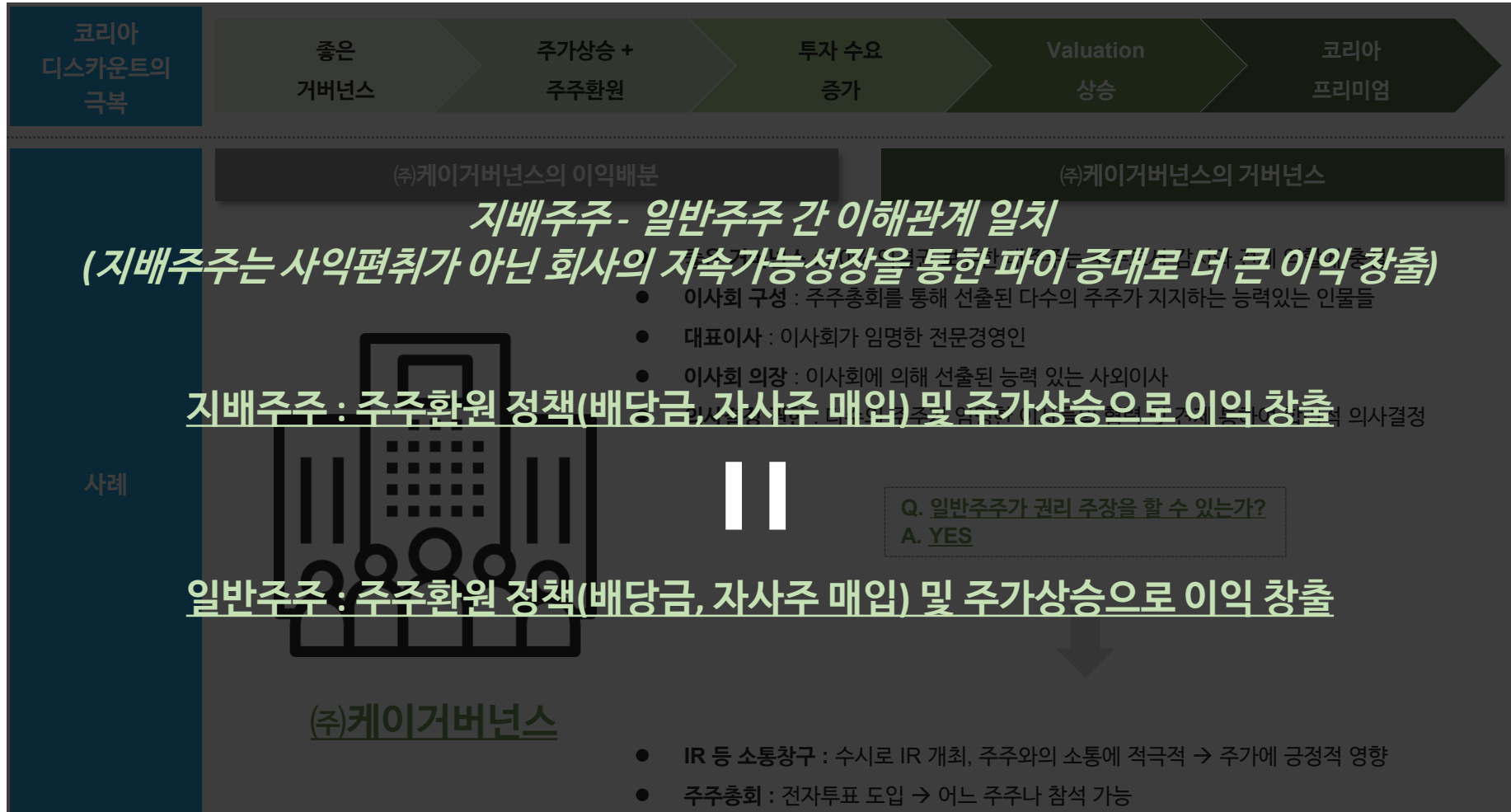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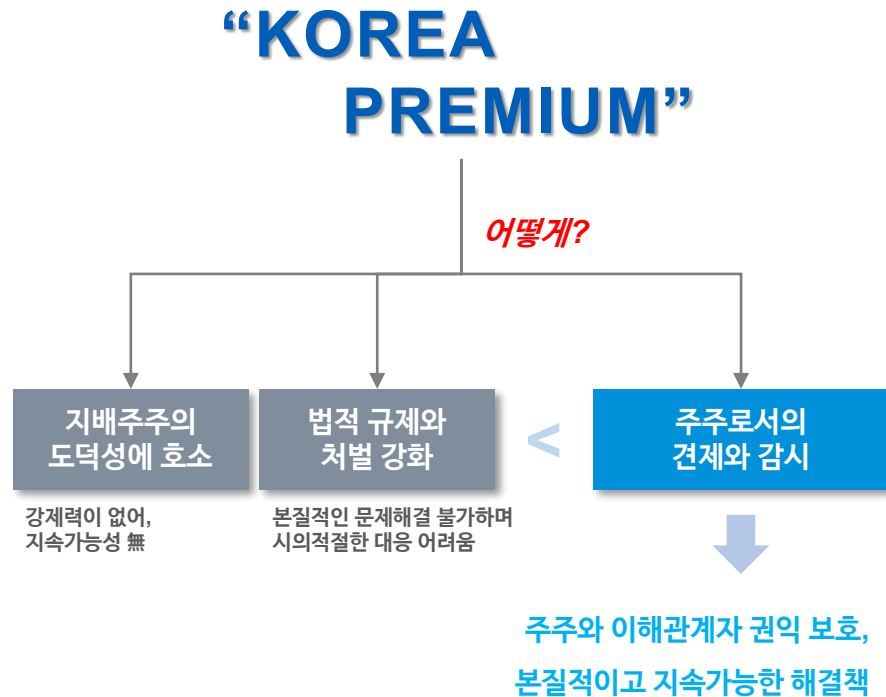


Source : KCGI,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2023

## II. ESGGG (Cont'd)

-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을 위해서는?
- 주주의 역할이 중요

###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



### KCGI의 생각



**“Value Cracking”**

- KCGI는 가치투자 (Value Investing)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Value Cracking”** 투자전략을 추구
-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기업도 좋은 기업이 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 “좋은 기업이지만 이상한 대주주를 만나 나쁜 주식이 되어 있는”<sup>1)</sup> 투자처를 발굴하고, 회사의 시어머니가 되는 Value Cracking 전략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극대화할 것
- 거버넌스 개선이 곧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믿음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후진적 거버넌스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

Source : 강성부,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2020

### Section III. ESG 투자의 방향

---

### III. ESG 투자의 방향

- ESG 중 가장 중요한 것은 G와 Climate
- KCGI는 Korea Climate & Governance Improvement Fund로 사명 변경 예정

## 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Fund



KCGI는 감동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마친 이후,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CI 통합 예정임  
사명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자 함

## Korea Climate & Governance Improvement Fund

### Environment



해양 플라스틱  
제거 단체 후원



기후위기 대응  
연구단체 후원

### Social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육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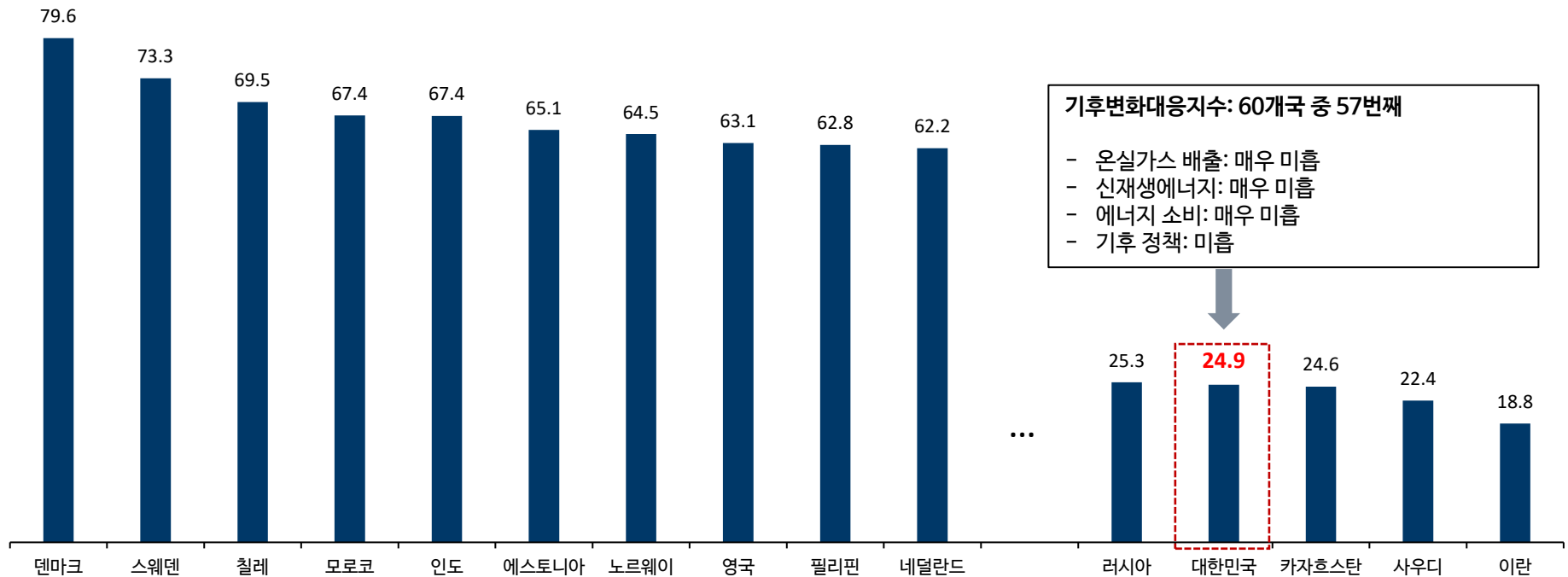
소아암 환자 지원

- KCGI는 앞으로 **기후변화 Activism Campaign**도 진행할 예정
- KCGI는 앞으로 ESG 블라인드 펀드를 할 때 **성과보수의 10%를 E와 S를 위한 단체**에 기부할 것  
(특히 시장 내부화하기 어려운 캠페인들에 주목할 예정)

### III. ESG 투자의 방향 (Cont'd)

- 한국 기후위기 대응 매우 미흡
-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 60개국 중 57번째!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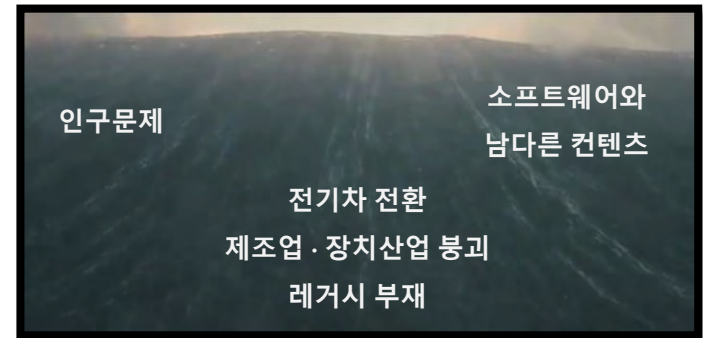
Source : CCPI(Climatic Change Performance Index,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기후변화성과지수로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9개국 및 EU의 기후완화노력을 나타냄

### III. ESG 투자의 방향 (Cont'd)

- 눈앞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 것
- 멀리서 오는 폭풍을 볼 것

#### 눈앞의 파도

“사람들은 2~3년 후의 미래는 두려워하지만, 10년 후 미래에는 둔감하다.” Bill Gates



#### 멀리서 오는 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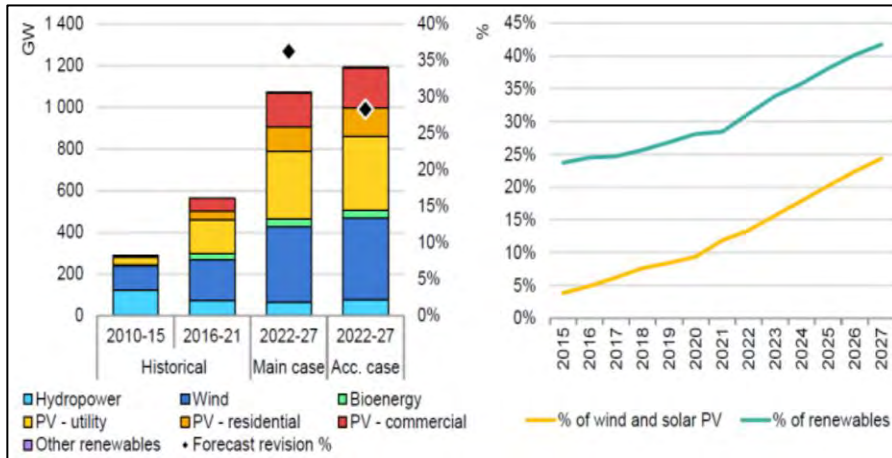
### III. ESG 투자의 방향 (Cont'd)

- 기후위기에 전세계의 돈이 몰릴 것
- 관련 산업 급격히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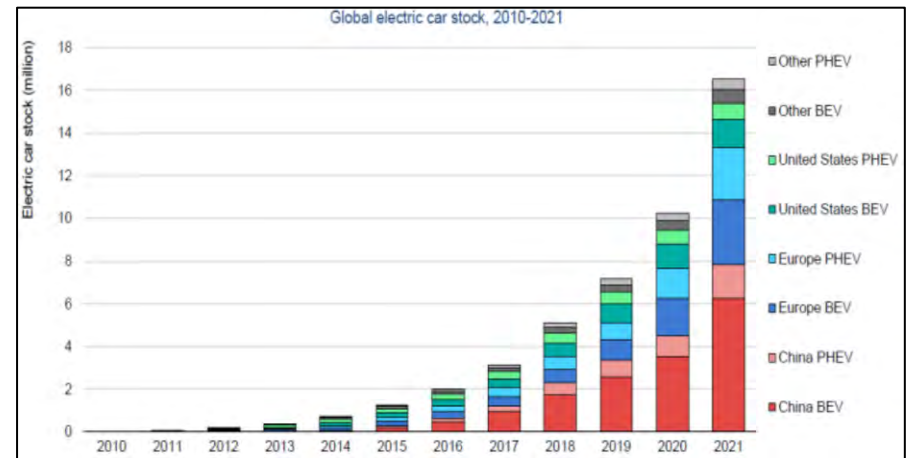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규제, 보조금 및 R&D 투자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전기차 관련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
-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선택**
- 국내 ESG 경영은 전 산업군에 걸쳐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며, **국내 기업 대다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표방하는 친환경 활동을 내세우는 중**
- 또한, 기업들은 **ESG 요소 기반 사업모델 및 포트폴리오 혁신과 관련 투자에 빠르게 접근 중**

중국의 재생에너지원별 증가추이 전망



Source :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최근 10년간 전기차 시장의 국가별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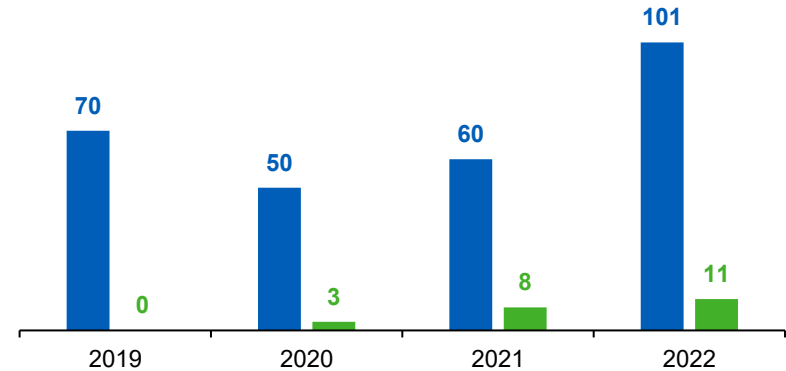
### III. ESG 투자의 방향 (Cont'd)

- 기후위기에 전세계의 돈이 몰릴 것
- 친환경 사회 구축 위한 투자자들의 적극적 행동 이어져



- 전세계 700여 곳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기후행동100+(Climate Action 100+)'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166개를 대상으로 강력한 기후 조치 촉구와 정보공개가 불성실한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주주관여 정책을 펼치는 중

■ 제출된 기후 관련 주주제안   ■ 통과된 기후 관련 주주제안



-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인 1~7월 사이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은 101건으로 2020년의 50건 및 2021년의 60건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
- 최근 일본 에너지기업 J-Power를 대상으로 Man Group, Amundi 및 HSBC가 탈탄소 전략 강화 관련 주주제안을 전달 → 일본 內 기후관련 주주제안이 최초로 등장한 사례

# CLOSING CREDITS

## I. 법과 제도 정비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30%로, 배당소득세 25%로 경감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전체주주'로 확장

합병, 분할, 상장폐지 등 일반주주 이익 크게 침해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MoM(Majority Of Minorities) 적용해야

연기금은 ESG에 대해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투자 비중 높이고, 의무화해야

## II. 정부와 기관

기후위기 대응과 거버넌스 개선을 하나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키워야

DISCOUNT, 악순환 구조에서

주식시장 저평가 → 돈맥경화 → 기업과 자본 모두 한국을 떠나 → 미래가 암울

PREMIUM, 선순환 구조로

코리아프리미엄 → 창의력 발현 → 일자리 창출 → 경제 부흥

## III. 기업가

악법도 법이다.

승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 필요 → 나눠야 커진다. Intellectual & Social Capital

富不三代(부불삼대) → "2대는 사위가 낳고, 3대는 양자가 낳다" → 가장 경영을 잘할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재산을 키우는 비결

## IV. 언론

"언론은 공공재적 성격 강해, 광고 이외의 수익원을 제도로 만들어주어야"

"상장을 하는 순간 오너라고 부르면 안된다", "경영권은 경쟁의 대상이지 천부인권이 아니다"

## Disclaimer

---

본 자료는 독자(讀者)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작성일 현재 이미 공개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 표시상의 오류 및/또는 인쇄상의 오류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작성일 이후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나 제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자료에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며 본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은 본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작위/부작위의 행위를 본 자료의 독자들에게 촉구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하며,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된 독자의 작위/부작위의 행위는 전적으로 당해 행위자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행위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자료 및/또는 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행위자가 행한 작위/부작위의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본 자료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나 분쟁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Sesson 4

# 대전환의 시대, ESG 전문 인력 지원체계 구축

윤동열 회장  
대한경영학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대전환의 시대, ESG 전문 인력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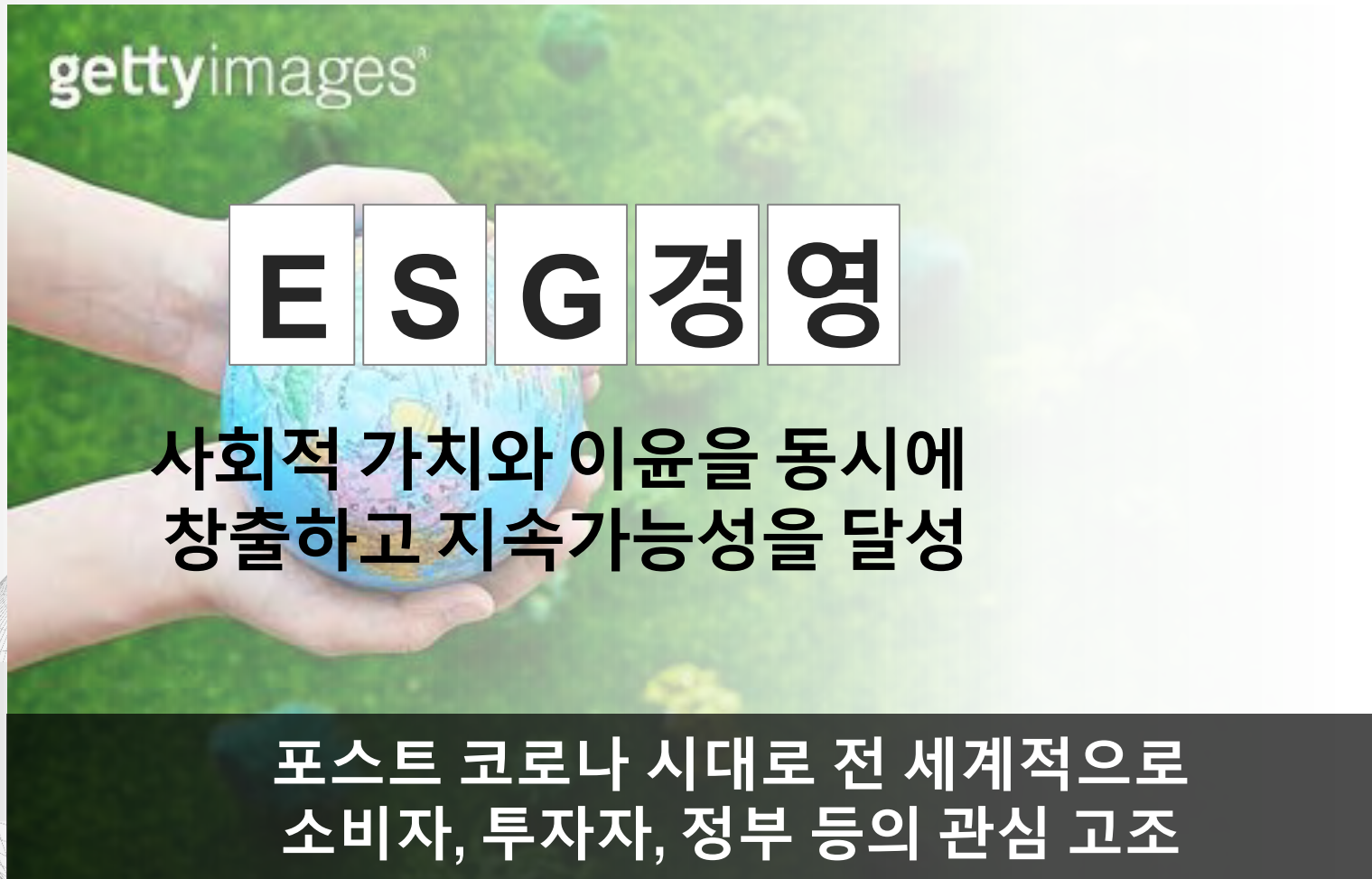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 ESG지원단장 / KU기술지주회사 대표





# 01 ESG 경영 확산

ESG



**E S G 경영**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의 관심 고조**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jv12569032>>



# 01 ESG 경영 확산

ESG

## UN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
- ✓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 의무화 규제



#1

최근엔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중립 대응이 증가**하는 추세

# 01 ESG 경영 확산

ESG

## » 글로벌 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



- ✓ 2030년 Net zero 선언
- ✓ 연간 전력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언(2017년)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구글>>



- ✓ 2030년 Net zero 선언
- ✓ 전세계 협력업체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 선언(2021년)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애플>>



# 01 ESG 경영 확산

ESG

## » 글로벌 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

bp

- ✓ 2050년 Net zero 선언
- ✓ 2030년 석유 · 천연가스 생산량 4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50GW) 도입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BP\\_\(기업\)](https://ko.wikipedia.org/wiki/BP_(기업))>

BlackRock®

- ✓ 투자 포트폴리오 내 ESG 요소 최우선 순위 지목
- ✓ 수익의 25% 이상이 석탄에서 발생하는 기업 투자 중단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블랙록\\_\(기업\)](https://ko.wikipedia.org/wiki/블랙록_(기업))>



# 01 ESG 경영 확산

ESG

» 글로벌 기업의 탄소 중립 대응

**BlackRock**®

**Vanguard**®

S&P500 기업의 92%

Russel1000 기업의 7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ESG 경영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인 견해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ESG 경영 도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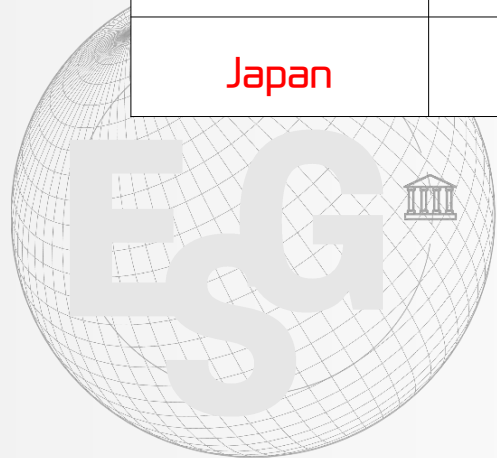
# 01 ESG 경영 확산

ESG

## » 지역별 지속가능 투자 자산 규모

(단위 : 10억 USD)

	2014	2016	2018	2020
Europe	10,759	11,258	12,544	10,937
United States	6,572	8,723	11,995	17,081
Canada	786	1,170	1,658	2,462
Australia/NZ	141	494	721	904
Japan	6	423	1,720	2,298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해외 우수대학 ESG 전문 인력 양성 사례

## 미국과 유럽 등

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대학의 내·외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여, ESG 경영을 활성화하고 실천하는 중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우수대학 ESG 전문 인력 양성 사례

#### 1 미네소타 대학교

- ✓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
- ✓ 지속가능성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를 구축
- ✓ 전 캠퍼스 범위에서 활동과 미션, 운영, 교육, 연구, 외부 활동 등을 수행
- ✓ 학교 단위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 ✓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보고, 학내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컨설팅, 교수진과 행정팀 간의 협력과 열려 있는 의사소통 등을 실행
- ✓ 2010년 기후 행동 계획을 선언하고 2011~2021년까지 10년 간 매년 전기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함
- ✓ 2021년 8200만kWh의 전기를 절약하여 \$68,875의 보상
-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은 2008년 대비 51% 감축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우수대학 ESG 전문 인력 양성 사례

#### 2 코넬대학교

- ✓ 2019년 지속가능성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학내에 지속가능위원회(Sustainable Cornell Council)을 설립
- ✓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규명하고, 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탄소 중립 캠퍼스 위원회, 캠퍼스 운영 위원회, 교육 및 참여 위원회를 두고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계획
- ✓ 재생에너지 활용의 증가, 화석 연료 퇴출 추진 등의 활동 지속
- ✓ 2020년 STARS 플래티넘 인증 획득

The Sustainability Tracking,  
Assessment & Rating System

#### 3 MIT

- ✓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의 지속가능성 센터는 ESG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진단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해외 우수대학 ESG 전문 인력 양성 사례

### 컨설팅 업체가 바라보는 ESG 경영

- ✓ McKinsey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규모는 2014년 대비 68% 증가한 30조 달러로 증가하여 관련 신규 채용 및 급여 인상을 견인했음을 밝힘
- ✓ PWC의 경우 ESG 관련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기후 변화 리스크와 지속가능성 관련 직책 10만 개 만들 것을 선포(2021.6월)



# 03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대학 ESG 경영 사례

### 1 하버드 경영전문대학교



ESG 현안에 중점을 둔 직업의 수가 증가  
운영 과정 개편 및 학내 연구센터와 협업

➔ 경영대학원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실천하는 추세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475399474>>

### 2 컬럼비아 경영전문대학원

2021년, Costis Maglaras  
(Columbia Business School 학장)

지난 20년 간 기업은 기술, 데이터의 영향을  
받았으나, 미래의 비즈니스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좌우

대학은 기후 변화 등  
**사회적 임팩트** 중요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해외 대학 ESG 경영 사례

**B** 예일 경영전문대학교

2021년, Todd Cort  
(Yale School of Management, Environment  
and Business Center 공동 책임자)

대학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불어온 변화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또는 ESG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증가 현상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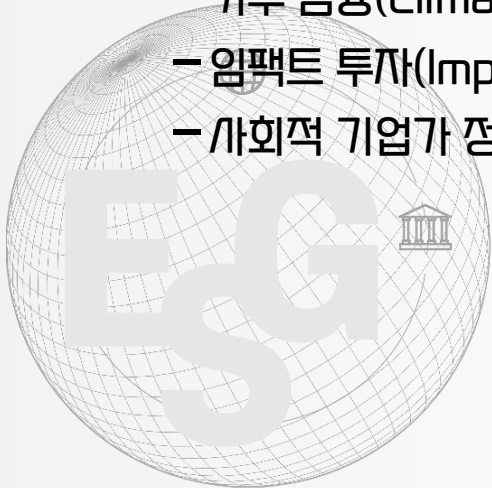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변화하는 해외 경영전문대학원 커리큘럼

- ✓ 미시경제학, 회계 및 재무 등 필수과목에  
지속가능성 관련 통합 커리큘럼 구성
- ✓ 과거엔 학생들의 선호 과목은 게임 이론, 가치 평가,  
인수합병 등
- ✓ 최근 선호 과목은 지속가능, CSR에 이어 ESG 관련  
과목으로 변화
  - 기후 금융(Climate Finance)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우수대학 ESG 관련 경영전문대학원 커리큘럼 변화

###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 Busi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Environment
- ✓ Sustainability Strategy
- ✓ Climate and Financial Markets
- ✓ Social Impact and Responsibility: Foundations
- ✓ Impact Investing 등
- ✓ 총 18개 MBA 전공 중 'The MBA Major in Business, Energy,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BEES)' 운영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Wharton\\_School\\_of\\_the\\_University\\_of\\_Pennsylvania](https://en.wikipedia.org/wiki/Wharton_School_of_the_University_of_Pennsylvania)>

### Harvard Business School

- ✓ Global Climate Change
- ✓ Confronting Climate Change : A Found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 ✓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ystems Change
- ✓ Sustainable Cities & Climate
- ✓ CSR 분야 대학원과정 최초 개설 학교
- ✓ Harvard Business School만의 강점인 Case Study 중심의 FIELD Immersion 수업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Harvard\\_Business\\_School](https://en.wikipedia.org/wiki/Harvard_Business_School)>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우수대학 ESG 관련 경영전문대학원 커리큘럼 변화

###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 ✓ Global Climate Policy and Sustainability
- ✓ Sustainable Energy
- ✓ Socially Responsible Real Estate Development
- ✓ Social Impact Investing
- ✓ Capstone Seminar in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등
- ✓ Sustainable Business Laboratory (S-Lab)에 참여하여 실제 상황에 전략 도출하는 Capstone Project 방식

### Cornell SC Johnson College of Business

- ✓ Social Entrepreneurship
- ✓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 ✓ Topics in ESG Investing
- ✓ Sustainable Global Enterprise Practicum
- ✓ Crisis Communications for Business Leaders
- ✓ Johnson's Center for Sustainable Global Enterprise(2003년 설립)의 연구 기능과 연계하고 실제 기업체와 경영컨설팅 방식 과제 수행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 해외 우수대학 ESG 관련 경영전문대학원 커리큘럼 변화

#### Warwick Business School

- ✓ 영국 Warwick Business School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한 커리큘럼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Warwick\\_Business\\_School](https://en.wikipedia.org/wiki/Warwick_Business_School)>

#### Duke's Fuqua School of Business

- ✓ FCCP(Fuqua's Client Consulting Practicum) 과정의 사회적 임팩트 일 경험 기회 제공 등의 사유로 MIT, Harvard와 함께 우수 경영대학원으로 선정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Fuqua\\_School\\_of\\_Business](https://en.wikipedia.org/wiki/Fuqua_School_of_Business)>



# 02 해외 우수대학 ESG 경영 및 인력 양성

ESG

» 해외 우수대학 ESG 관련 경영전문대학원 순위

10 of the Best Business  
Schools for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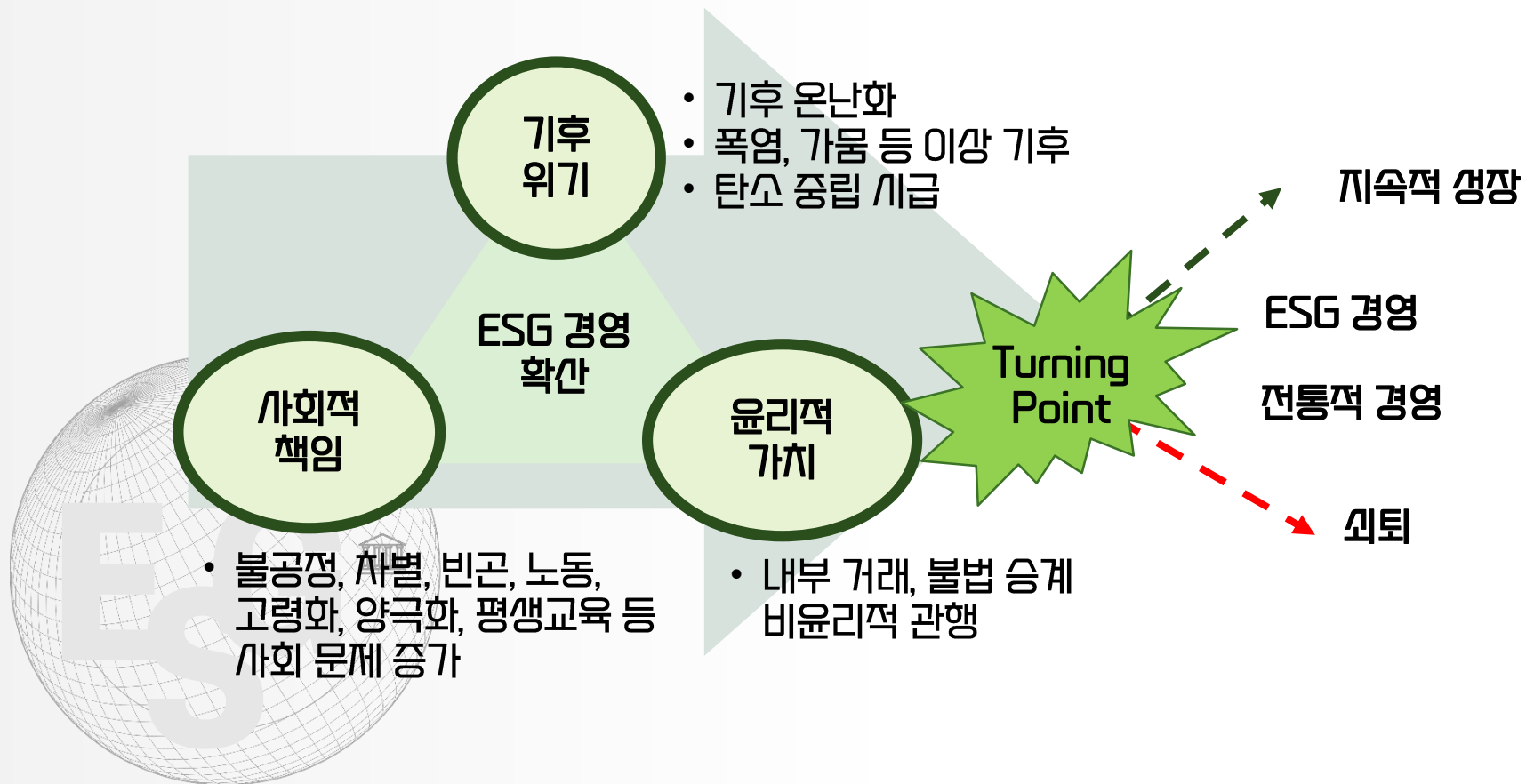
순위	경영대학원 (국가)	순위	경영대학원 (국가)
1	Warwick Business School (영)	6	Saïd Business School (영)
2	University of Exeter Business School (영)	7	IE Business School (스페인)
3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미국)	8	Harvard Business School (미국)
4	INSEAD (프랑스)	9	Cornell Samuel Curtis Johnson College of Business (미국)
5	The Fuqua School of Business (미국)	10	Rotterdam School of Management Erasmus University (네덜란드)

# 03 국내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 국내대학 ESG경영 추진

- 기후 위기, 사회적 책임, 윤리적 가치 등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ESG경영 필요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ESG 경영 현황

기후 위기, 사회적 책임, 윤리적 가치 등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국대학교는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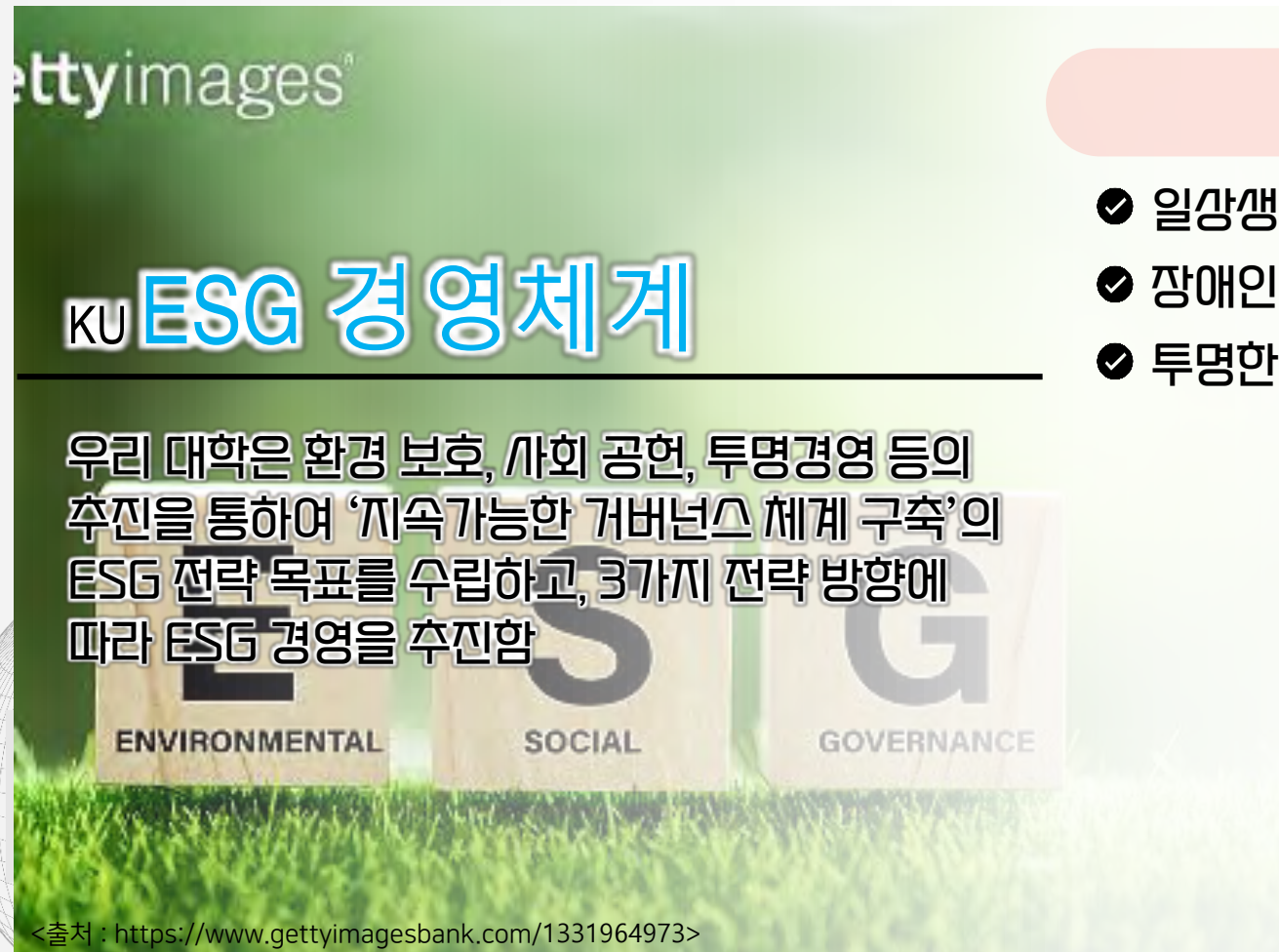
학교법인 최초 ESG 위원회 출범 및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jv12562519>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건국대학교>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건국대학교 ESG 경영 체계

- ✔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
- ✔ 장애인 고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
- ✔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라는 전략 방향 수립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확산

장애인  
고용 확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진

청년 창업 지원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1 2021년 4월

한국대학신문 2021.04.05.

### 학교법인 건국대 ESG경영 도입, ESG위원회 신설

학교법인 건국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경영'을 도입한다. (사진=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용...



스마트경제 2021.04.05.

### 학교법인 건국대, 'ESG경영 도입' ESG위원회 신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기구인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경영'을 도입한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



아시아타임즈 2021.04.05.

### 건국대, ESG 경영 도입...ESG위원회 신설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강조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ESG 경영 위원회를 개설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선다. 건국대는 ES...



## ✔ ESG경영이 대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계기

출처 : <https://naver.me/xmP0RIrN>

## 대학법인 최초 ESG 경영 선언

환경 경영

이사장 직속  
ESG 위원회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2 2022년 4월

- ✓ 대학유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고용 응원멤버십』 가입
-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기획 · 운영

## 3 2022년 5월

- ✓ 교학부총장 산하 ESG지원단 설치
-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상학 100주년 비전 선포
- ✓ 법인 및 산하기관의 성과를 담은 『KU ESG  
Performance Report』 발간

## 4 2022년 7월

- ✓ 『2022년도 ESG 경영 추진과제』 발표
- ✓ ESG지원단 『KU ESG Brief』 창간

## 5 2022년 9월

- ✓ 『ESG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 » 건국대학교 2021년도 ESG 경영 과제 추진 실적

- 2021년도 총 6개 과제를 수행
- 환경경영 26억 원, 사회적 책임 30억 원, 투명경영 1억 원 등 약 5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

	과제명	지속 여부	예산
Environment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li><li>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활동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기 사업</li><li>한기 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634백만 원</li></ul>
Social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장애인 고용 확대</li><li>그린 스타트업 밸리 조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속 사업</li><li>한기 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3,092백만 원</li></ul>
Governance (투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ESG TF 설치 및 운영</li><li>독립된 감사 기구 설치 및 내부 감사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속 사업</li><li>지속 사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13백만 원</li></ul>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 건국대학교 2022년도 ESG 경영 과제 추진 실적

- ESG 경영 과제 환경분야 4개, 사회적 책임 16개, 투명경영 3개 등 총 23개 발굴

분야	과제명			
환경경영 (4과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제로 캠퍼스 사업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	그린봉사단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석/박사)양성
사회적 책임 (16과제)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장애학생 교육 활동 및 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주민 및 구성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제공
	Discover(국가 난제 해결)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상생 나눔	ESG 분야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KU I'M DOgNOR 헌열 센터 사업을 통한 반려동물 헌열문화 조성
	인권 개포터즈 활동을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미래지식교육원 관안학 협력 과정을 통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ESG Brief 발간
	ESG 최고경영자과정 개설(경영전문대학원, ESG지원단)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ESG 민간자격 등록	KU ESG 인증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	ESG 경영 과제 관리 및 ESG 인재 양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소통 강화	
투명경영 (3과제)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 사회적 책임 과제

- ESG 거버넌스 구축 연계하여 ESG 사회적 책임 16개 과제 발굴

ESG 분야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ESG Brief 발간

인권 개포터즈 활동을 통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미래지식교육원 관간학 협력 과정을 통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민간자격 등록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ESG 최고경영자과정

KU ESG 인증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 사회적 책임 과제

- ESG 위원회 정기적 실시

### ESG 위원회 추진 목적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ESG 지원단'이 신설되었으며, 내·외부 조직 구성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ESG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 ESG 전문가 그룹의 구성

- ✓ 교내 처 · 단장, 학장
- ✓ 외부 기업, 공공기관, 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언론, 법조인, 회계사 등
- ✓ 청년(슈퍼루키) 및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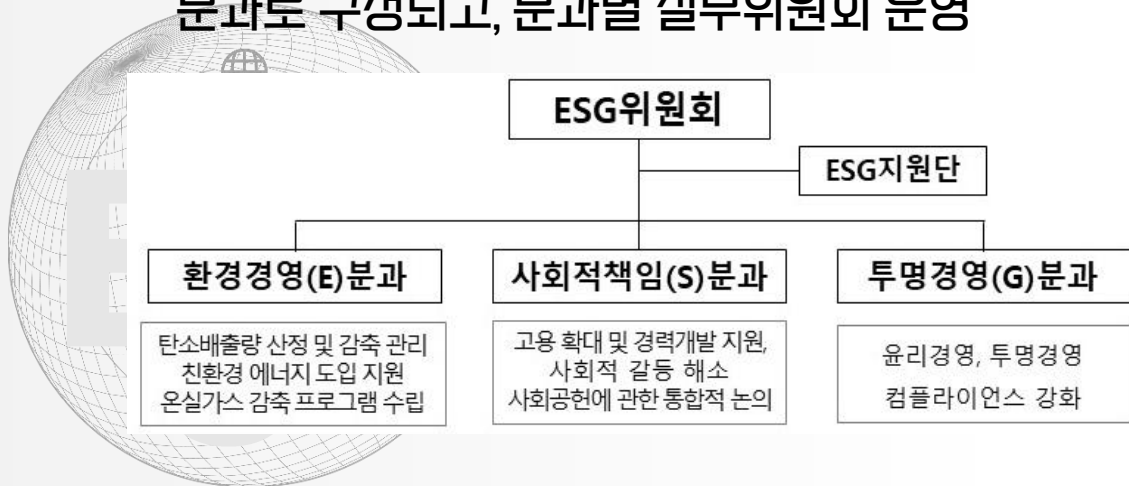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 ESG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 대학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통합적 논의를 거쳐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추구
- ✓ 위원회는 건국대학교 ESG 경영 체계의 추진과 나아가 ESG 생태계 구축에 기여
- ✓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 운영



- ✓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ESG 전문가 커뮤니티를 완성하고, 본교 ESG 경영 실천과 이해관계자 간 ESG 가치 실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ESG 생태계 구축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대학의 역할

- ✓ 전통적인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세스의 행위자(Actor)로서 기능
- ✓ 상술한 기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강화
- ✓ 단순한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산업에 지식 축적 제공
- ✓ 대학 내 기술 실적, R&D 기술의 축적
- ✓ 기업가 정신의 발전
- ✓ 지역사회 혁신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
- ✓ 지역사회와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필수

- ✓ 내부적으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 ✓ 지역사회(Local Society)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 ✓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캠퍼스의 구현을 위한 경영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구
- ✓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공헌하기 위한 역할 검토
-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추구
- ✓ 통합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 모두 필요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교육과정 개발

- ✓ Discover(국가 난제 해결) 과정
- ✓ ESG 분야 모듈형 과정
- ✓ ESG 최고경영자 과정 등

ESG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건국대학교

### 인재양성

- ✓ 특성화 대학원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2023.2월) 및 통합환경관리(2020.9월) 분야 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 ✓ 학부 대상 ESG 정규 과정 개설(2023.3월)
-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등을 통해 ESG 청년 인력 양성에 기여

### 인재양성

- ✓ 중앙일보 '2022년 전국대학평가', 종합순위 7위를 기록
  - ➔ 취·창업과 현장실습 등 학생 교육 부문에서 강점(3위)
- ✓ 학생 교육 부문은 2018년 17위였으나, 2019년 16위, 2021년 9위까지 상승했고, 2022년 '3위' 달성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장애학생 교육

- ✔ 각종 교육 및 편의시설 제공
- ✔ 관련 제도 시행
- ✔ 장애학생 서포터즈 실시
- ✔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등

<출처 : <http://student.konkuk.ac.kr/> >

## 지역사회 교육



- ✔ 미래지식교육원은 광진구와 공동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간병인 양성, 부동산 관리, 사회복지사 등

<출처 : <http://m.konkuk.ac.kr/edulife2014/login.html>>

# 03 국내 대학의 ESG 경영 추진

ESG

## 안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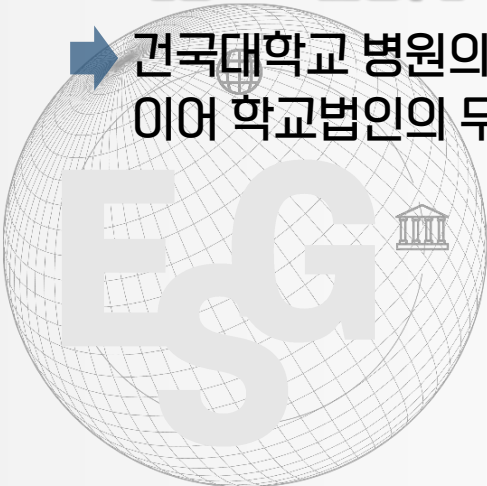
- ✔ 2022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경연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대학 캠퍼스로는 최초)
- ➡ 건국대학교 병원의 2020년도 우수상 수여에 이어 학교법인의 두 번째 수상

## 소방안전모범대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시민의 안전 의식 함양 및 도시 환경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과 기관에 포상하며 2008년 도입

“ 건국대의 대외적 이미지에 좋은 효과, 안전한 캠퍼스에 대한 노력 어필 ”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ESG 확산 대학의 역할과 산·학·연 연계

첫 번째 의제

“ ESG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은? ”

수시 채용 및 직무별 채용의 확산,  
ESG 관련도 높은 직무에 지원자가 많음

ESG 전문 인력 양성 현황

- ✔ ESG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산업계 대응력 저하
- ✔ 대학은 ESG 전문 인력 양성의 의무 존재
-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무 인력 양성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1290835839>>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ESG 우수사례 발굴 노력



ESG와 대학 경영을 주제로 열린 제10차  
대학혁신지원사업(UI) 웨비나 콘퍼런스(2022.10월)에서  
건국대학교 ESG경영 실적이 대학부문 우수 사례로 소개

<출처 : 한국대학신문. 2022.11.0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6114>>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개요

-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38개 참여기업 중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건국대학교 선정 및 운영
- ☑ 건국대학교(대표 기관)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주)엘리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컨소시엄으로 사업 진행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및 청년 고용 활성화 지원



기업 간 연계, 산학 연계는 원활  
비용 처리 등 실무적인 난관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건국대는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출처 : <http://www.konkuk.ac.kr/do/index.do>>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커리큘럼

- ✓ 총 3개의 트랙
- ✓ 2.5개월의 직무교육과 3개월의 일 경험을  
순차적으로 진행
- ✓ ESG 지원단을 중심으로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엘리스,  
이노비즈(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함께  
권소기업을 구성해 ‘산·학·연 연계 ESG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진행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TRACK 1.

KU 경영대학 교수진,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 컨설팅 과정

- ✓ 현장 전문가의 다수 참여로 인해 실무적인 내용 또한 폭넓게 다루어짐
- ✓ 실제 일 경험에 대한 매칭

## TRACK 2.

(주)엘리스에서 제공하는 인문·사회 계열 청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교육 및 일 경험

- ✓ 인문·사회 계열 청년 비율 60~70%
- ✓ 학습자 수준별 교육으로 기획
- ✓ TRACK 1과 더불어 높은 인기와 수요율

## TRACK 3.

건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하는  
기술이전전문가 직무교육 및 일 경험

- ✓ 실제 기술지주회사 및 특허 회사에 방문하여 일 경험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 ESG경영컨설턴트 양성 등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 » ESG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 우수 사업으로 선정, 트랙별 직무교육 및 일경험 결과(Test)  
참여자 직무역량이 높아진 것을 확인

	참여자		Test		기업 연계 일 경험
	선발	직무교육 수료	Pre-Test	Post-Test	
ESG 경영 컨설팅	•45명 선발 (30명 계획) •16개 대학, 23개 전공 참여	•44명 수료 •중도포기 1명(취업) •PBL 및 개별과제 수행	•평균 75.69점 •최저 45점, 최고 95점	•평균 86.05점 •최저 45점, 최고 100점 •Pre-test대비 10.4점 향상	•일경험 참여 32명 •ESG컨설턴트(7명) 매칭으로 기업 ESG컨설팅 수행
SW 엔지니어	•55명 선발 (50명 계획) •25개 대학, 37개 전공 참여	•50명 수료 •중도포기 5명(취업 등) •PBL 수행으로 6개소 서비스산출물 완성	•평균 374.1점 •최저 0점, 최고 1,060점	•평균 840.5점 •최저 0점, 최고 1800점 •Pre-test대비 466.4점 향상	•일경험 참여 22명 •IT software 기업 프로그래밍 업무 참여
기술 이전 전문가	•20명 선발 (20명 계획)	•19명 수료 •중도포기 1명(취업) •자격증 취득 (TCC 15명, BMC 18명)	•평균 39.75점 •최저 15점, 최고 60점	•평균 72.89점 •최저 55점, 최고 90점 •Pre-test대비 33점 향상	•일경험 참여 17명 •건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7명, 특허법인 9명, 강소기업 1명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ESG 확산 대학의 역할과 산·학·연 연계

두 번째 의제

“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

- ✓ 지역사회에게 대학의 영향력 증가
- ✓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 동반 성장 관련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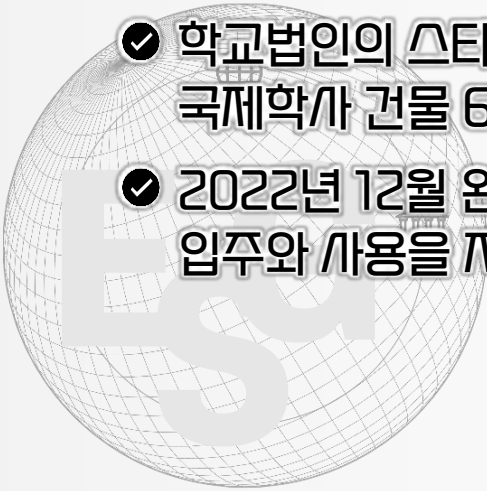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 지역 산학연관 연계 방안

캠퍼스 타운 사업으로  
건대 인근 창업 메카로 탈바꿈

- ✓ 건국대는 광진구와 함께 2022년 1월부터 서울시가 주관하는 ‘K-이노베이션 스테이션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함
- ✓ 건국대 인근을 Bio · ICT · Green 분양 창업 메카로 육성
- ✓ 학교법인의 스타시티 지하 1층 공간, 국제학사 건물 6층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
- ✓ 2022년 12월 완공하여 유망 창업 기업의 입주와 사용을 지원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 국내 기업 ESG 동향

LG전자



- ✓ ESG 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체계 구축을 ESG 전략 과제로 선정
- ✓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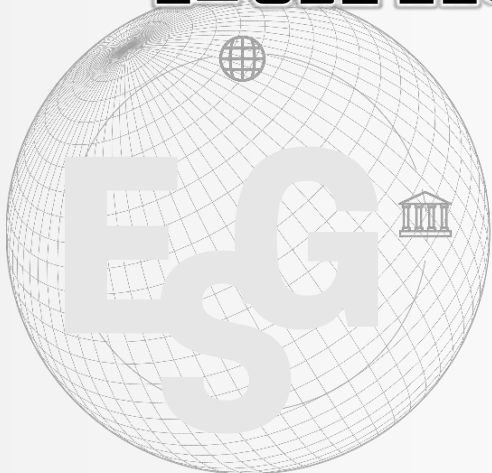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LG전자>>

삼성전자

**SAMSUNG**

- ✓ 나노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필터 제품인 ShareAIR를 선보임(나노코리아 2022)
- ✓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첨단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삼성전자>>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 국내 기업 ESG 동향

삼생바이로직스

**SAMSUNG**  
BIOLOGICS

- ✓ 2021년 ESG위원회를 신설
- ✓ ESG 경영을 통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상위 10% 기업인 'DJSI 월드 지수'에 선정

<출처 : <https://namu.wiki/w/삼생바이로직스>>



신산업 투자계획

- ✓ 국내 대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 (친환경, 바이오, AI)에 대해 대규모 투자 및 채용

기업	주요 분야	고용 계획	기간	투자 계획
삼성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AI와 차세대통신)	8만 명	~2026	360조 원
SK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5만 명	~2026	179조 원
LG	배터리, 배터리소재, AI, 바이오 등	5만 명	~2026	106조 원
포스코	친환경 미래소재, 친환경 인프라 등	2.5만 명	~2026	33조 원
한화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등	2만 명	~2026	20조 원



# 04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ESG

## » 해외 기업 ESG 동향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 ✓ DAC(Direct Air Capture) 필터 공법을 개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Climeworks와 1만 톤의 탄소제거에 관한 협약(Carbon Removal Agreement)을 체결(2022)하는 등 공급망 전체 탄소절감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2030 탄소 네거티브 추진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 ✓ 2030년까지 10억톤의 CO2 감축 목표 (협력사 동참 요구)
- ✓ 차별금지, 평등, 아동노동금지 등의 인권생명개 발표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월마트>>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Sesson 5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2023년 04월 | 도현명 | 임팩트스퀘어



# 1. 배경과 의미 (1/2)

사회문제의 심화, MZ세대의 부상에 따른 시장 및 경영환경의 변화, 금융의 급박한 변화로 인해 ESG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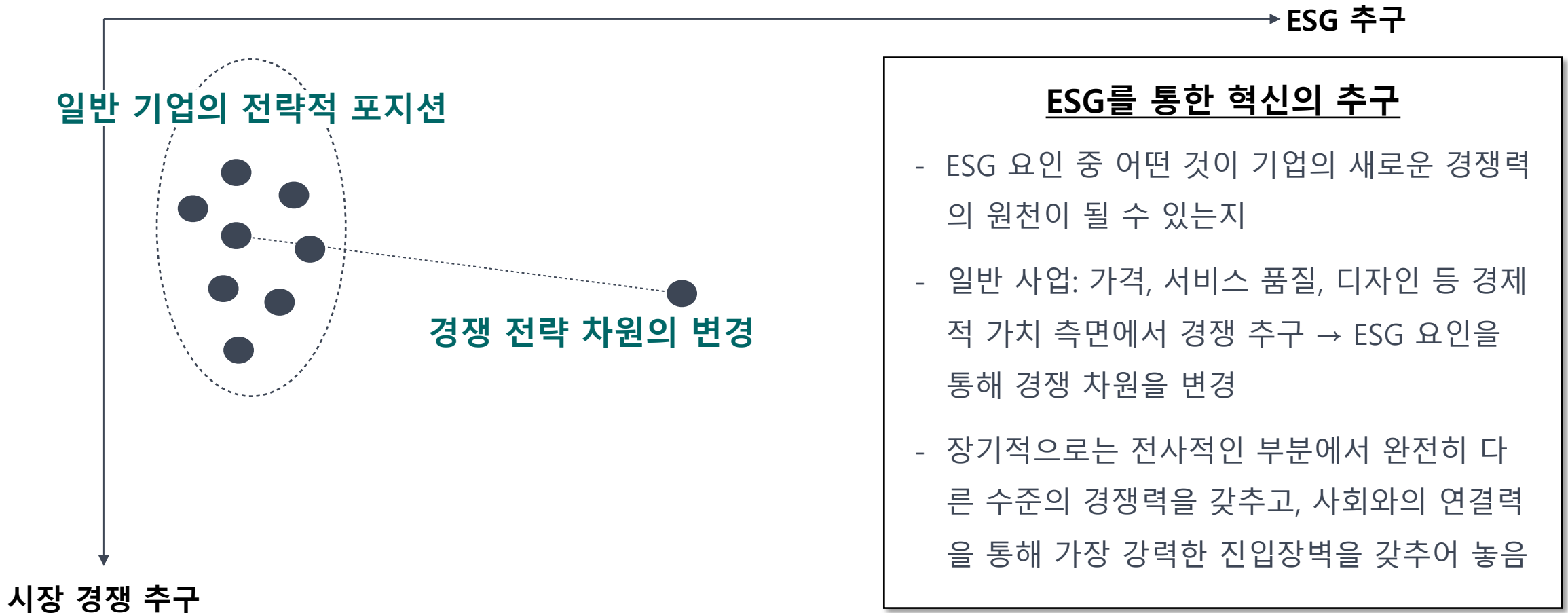
기업명	이유
삼성전자	-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나 선언 없음 - 2019년 대비 2020년 탄소배출량 약 151만톤 증가
SK하이닉스	- 매출액대비 탄소배출량이 삼성전자의 약 3배 수으로 감축 노력 부족
SK주식회사	- RE100 가입했으나 탄소중립 시가-계획 없어 에너지 관련 비상장 자회사(SK E&S 등)의 탄소감축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현대제철	-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높음 - 2020년엔 매출 증가 없이도 2019년 대비 탄소 배출 증가
화학회사(LG화학·포스코케미칼·롯데케미칼)	-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 높음 - 롯데케미칼의 경우 ESG 정보공개 수준 낮아(블룸버그 평가)
통신회사(SK텔레콤·LG유플러스)	- SK텔레콤 2019년 대비 2020년 탄소배출 증가 - LG유플러스는 유럽 통신회사인 보다폰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 2배 높음
LG디스플레이	-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삼성전자의 4배 수준으로 감축 노력 부족

공적 책임	IFRS재단 감독이사회				
지배구조, 전략 및 감독	IFRS재단 이사회				
독립적인 기준제정 및 관련 활동	<table><tr><td>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td><td>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td></tr><tr><td>IFRS 회계기준</td><td>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td></tr></table>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IFRS 회계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IFRS 회계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해석위원회				

# 1. 배경과 의미 (2/2)

공공기관은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자관점의 ESG는 직접 적용이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의 정체성에 ESG 접근이 유의미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제고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보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내 ESG 확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회 / 시장 / 경영 환경의 변화

#### 1 공공기관 스스로의 설립 목적 제고의 필요성

- 공공기관의 최종 고객인 국민과 사회가 가진 관점 및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고
- 개별 공공기관이 마주한 각각의 사회적 리스크와 그 이면의 기회를 극대화 및 혁신하기 위한 노력

#### 2 공공기관의 영향력을 통한 국내 ESG 확산 지원 필요성

- 공공기관이 가진 자원동원 능력, 소비력, 지역의 영향력, 정부부처 또는 정책과의 연계 역량 등을 활용하여 국내 조직들의 ESG가 확산 및 강화되도록 지원
- 특히 임팩트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자로서의 역할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① 스스로의 ESG (1/2)

현행 공공기관 평가 중 상당 부분이 ESG 요소와 관련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 의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중분류	공시항목	세항목
기관운영	인원	임직원수 현황		재무성과	요약 재무상태표	
		임원현황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신규채용 현황			수입 및 지출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 모집공 직원 채용?		자본금 및 주주현황	
	보수	임원 연봉 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직원 평균보수 현황			감사보고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내부·외부 감사결과 자체 감사부서 현황
		기관장 업무추진비			납세정보현황	법인세 세무 확정내역 조세포탈현황
		복리후생비		사업 및 투자	주요사업	
	ESG 경영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황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경영책임 개인정보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퇴직 임원 재취업 현황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신규 시설 투자 출연 현황
		환경보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현황 녹색제품 구매실적			경영부담비용 추계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인권경영			동반성장 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청렴도 평가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대내외 평가 등	국회 등 외부평가	국회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평가 지적사항
		임원 국외출장 내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현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단체협약 정보 임금협약 정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제도운영 상황 노조 운영비 지원 영리시설·장비운영권 노조 위탁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기타	내부규정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처분 결과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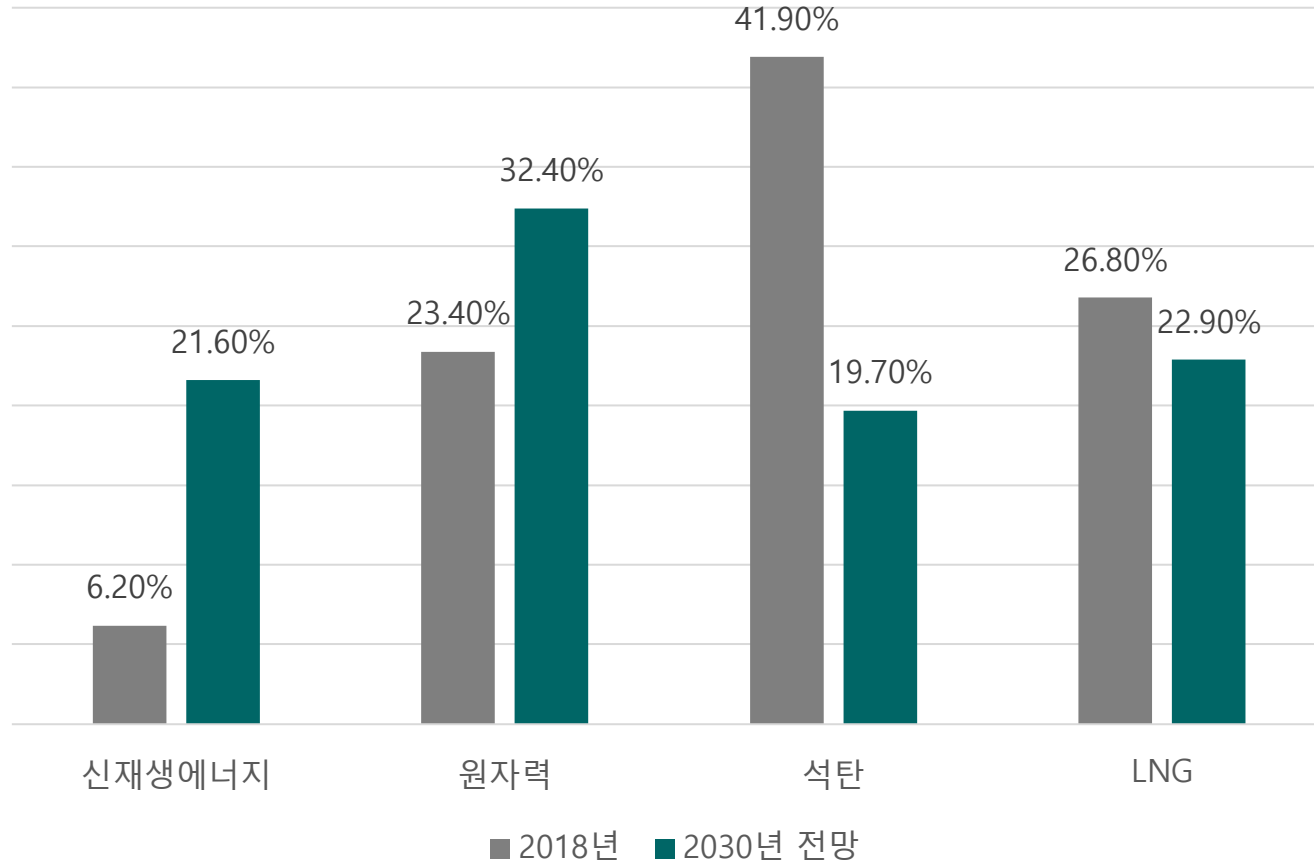
ESG 경영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① 스스로의 ESG (2/2)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고객 역시 ESG 경영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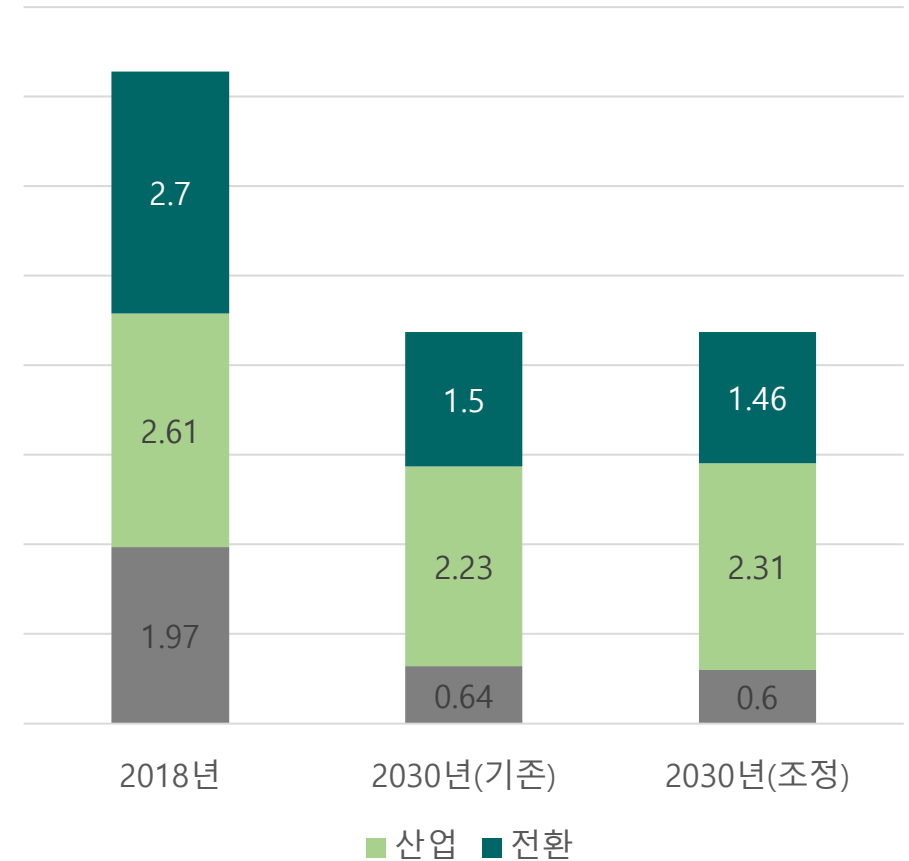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탄소배출량 기준, 단위: 억t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안

탄소배출량 기준, 단위: 억t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② ESG 생태계 기여 (1/4)

공공기관은 대규모의 소비, 구매, 기여, 사회공헌, 고용,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ESG 생태계에 좋은 기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조달 구매실적

NO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추이
18	한국도로공사	0	606,319	746,967	-	
19	한국동서발전(주)	0	239,166	178,404	-	
8	인천국제공항공사	0	139,716	147,081	-	
17	한국남부발전(주)	0	166,548	142,561	-	
16	한국남동발전(주)	0	149,331	121,543	-	
14	한국공항공사	0	114,405	115,717	-	
13	한국가스공사	0	101,210	81,914	-	
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0	36,590	75,603	-	
5	부산항만공사	0	34,544	61,394	-	
1	(주)강원랜드	0	64,165	33,970	-	
4	대한석탄공사	0	20,207	20,098	-	
11	주식회사 에스알	0	18,031	20,094	-	
15	한국광해광업공단	0	1,895	14,005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NO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추이
12	(주)강원랜드	265,160	199,270	176,811	-	
1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7,939	54,636	94,581	-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0,604	44,570	80,526	-	
19	강원대학교병원	21,422	24,030	24,726	-	
13	(주)공영홈쇼핑	38,960	24,725	14,285	-	
4	(재)예술경영지원센터	6,449	11,000	12,673	-	
11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062	12,616	12,565	-	
17	가죽위생방역지원본부	8,284	9,452	9,742	-	
15	88관광개발(주)	5,904	5,252	5,526	-	
6	(재)우체국물류지원단	4,005	5,930	5,173	-	
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699	3,409	4,610	-	
18	강릉원주대학교지과병원	3,644	5,029	4,552	-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② ESG 생태계 기여 (2/4)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ESG의 지역사회 및 임직원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지금의 활동을 고도화 할 수 있습니다.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② ESG 생태계 기여 (3/4)

공항공사는 네이버 해피빈과 협업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인근 로컬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2. 공공기관의 ESG 경영 ② ESG 생태계 기여 (4/4)

K-water는 임팩트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를 해왔고, 에이런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과 필터 폐기물을 80% 이상 낮추고 소규모화가 가능한 수처리 필터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 3. 함의 - 리스크 보다는 기회로

보통의 ESG는 투자자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에 초점이 강합니다만, 공공기관의 다수는 투자자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 공공의 유익을 구가하는 기회 요인으로서의 ESG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함의 - 근본적 정체성과 혁신

ESG라는 개념에 매몰되기 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근본적인 기업의 정체성으로 돌아가 혁신을 이어가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imothydho@impactsquare.com](mailto:timothydho@impactsquare.com)

# 이투데이 ESG포럼 2023

## “민간 ESG 생태계 조성 방안”

2023. 04. 19 [WED] |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